

09

September 2025
vol. 291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FW New Bags



CHANEL

HIGH JEWELRY

COLLECTION N°5

샤넬 화인 주얼리에서 대담한 기술력과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결합이라는 창의적 표현이 담긴 55.55 네크리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네크리스는 N°5 향수병의 모든 코드를 재현한 디자인으로, 55.55캐럿이라는 인상적인 무게로 커팅 된 다이아몬드가 가운데 위치하며 700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탐색하는 일. 더 크고 무거운 원석을 찾기보다 완벽한 퀄리티의 스톤을 찾는 것,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법입니다.

이 특별한 작품은 이제 샤넬 하우스의 유산 속에 남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 시킵니다. 샤넬의 창작물은 영원하다는 것을.



N°5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55.55캐럿 에메랄드 컷 DFL Type IIa 다이아몬드.

CELINE





Ashley Graham - Ariana DeBose

my little secret



SEAMASTER #AQUATERRA 30 MM
Co-Axial Master Chronometer



갤러리아 명품관 EAST 광고점 롯데 본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티미널점 현대 목동점 무역센터점 더현대서울점 신세계 본점 더 리저브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진 이트앤사이언스점 대구점

Contents

- 10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2_SELECTION 1** 버건디, 올리브 톤 등이 조화를 이루는 그녀의 가을 스타일링.
- 13_TRULY PURE** 그 어떤 유색 보석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다이아몬드의 품격.
- 14_SELECTION 2** 니트, 울, 스웨이드 같은 소재로 가을 무드를 배가하는 맨즈 셀렉션.
- 15_PERFECT HARMONY** 스틸과 골드가 만나 더 특별한 콤비 워치 셀렉션.
- 16_‘공예다운’ 것, 태도의 가치에 관하여** ‘카이프 리즈’ 기간 펼쳐진 프로그램 중 공예 관련 기획전과 청주공예비엔날레를 통해 살펴본 오늘 의 공예.
- 17_지구의 내일을 사랑하는 법, ‘세상 찾기’** 공예로 ‘세상 찾기’를 보여주는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11월 2일까지)가 개막했다. 환경을 생각하고 새로운 세상을 짓는 공예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다.
- 18_잃어버린 흔적을 찾아서**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8팀이 올해 청주공예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인도 국립공예박물관, 7월 영국 휘트워스 미술관으로 순회 전시를 가진다. 그 가운데 한국 작가로 선정된 고소미 작가를 잇따가는 우리의 전통 소재가 가득한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 19_안토니 고폴리와 ‘동물의 신화’** 안토니 고폴리(Antony Gormley)는 신체를 단순히 인간적 자율성의 표지로만 보지 않고, 우주적 질서와 연



36



18



12



28

결된 '동물적 매개체'로 이해한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도시 문명에서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실험인 동시에, 몸을 통해 다시금 자연과 우주의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다.

20_ADVANCED INNOVATION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가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았다. 혁신과 전통의 공존이라는 긴 서사시를 써온 오데마 피게의 시간을 신제품을 통해 재조명한다.

22_KING OF DIAMONDS 반세기 동안 주얼리를 향한 찬사를 담아온 그라프(GRAFF)의 창의성과 더불어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행로를 되돌아본다.

24_A LEGACY OF FLOWERS 늘 자연의 생명력에 매혹되어온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스코틀랜드의 플라워 가든에서 열린 특별한 이벤트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이 주얼리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26_GET THE LIST 품격 있는 가을을 보내는 가장 이로운 쇼핑.

28_MOVE BEYOND 스타일을 완성하는 순간. 이번 시즌 최고의 파트너, 뉴 잇(NEW IT) 백 셀렉션.

36_NEW SEASON, NEW ESSENCE 계절의 변화 앞에서 마주한 F/W 백 & 슈즈.

44_DESIRE OF AUTUMN 농밀하고 강렬하다. 질게 배어든 빛 사이로 드러난 형형색색의 가을 향.

45_‘빛의 도시’에서 반짝이는 이탈리아 감성 한층 더 근사해진 파리 도시의 호텔 풍경 중에는 2021년 말 파리의 동맥으로 불리는 8구(센강 오른쪽)에 우아하게 등지를 튼 불가리 호텔 파리(Bulgari Hotel Paris)가 있다.

46_EDITOR'S PICK 계절의 변화가 시작된 지금, 완벽한 뷰티 큐레이션을 제안한다.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Tod's)가 2025~26 프리시즌 광고 캠페인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Puglia) 지역의 유서 깊은 빌라 콜루치(Villa Colucci)를 배경으로 이탈리아 특유의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담아냈다. 문의 02-3448-8233

국내 및 해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브랜드의 최신 트렌드와 주목할 만한 소식을.



Blue Luxe
파넬라이는 가구 박람회 살로네 델 모빌레의 공식 타임키퍼로 복귀하며, 이 행사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루미노르 GMT 파워 리저브 세라미카 PAM01574'를 출시했다. 44mm 블랙 세라믹 케이스에 은은하게 반사되는 블루 선브러시 다이얼, 5시 방향에 위치한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와 3시 방향에 자리한 날카형에서 브랜드 교유의 대담한 미학이 느껴진다. 또 화이트 슈퍼루미노바® X2로 코팅한 시침과 분침은 시간성을 높여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급스러운 블루 악어가죽 스트랩은 캐주얼한 블루 러버 스트랩으로 호환 가능하니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착용해보자. 가격 미정. 문의 1670-1936

For the Queen

2백4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자형 하이주얼러 쇼메의 조세핀(Joséphine) 컬렉션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의 첫 황후 이름을 딴 아이코닉한 컬렉션 중 하나다. 이 컬렉션의 상징적인 V 세이프의 아그레프 모티브를 재해석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조세핀 네크라스를 소개한다. 우아한 곡선과 날렵한 세이프가 세련된 모습을 자랑하며, 레이스를 연상시킴 정도로 정교하게 세팅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오픈워크로 세팅해 풍부한 빛과 질감을 더했다. 문의 1670-1180



Dive into Orange

오메가 다이빙 워치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컬러가 있다. 바로 오렌지. 최근에는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컬렉션에 새로운 메시 브레이슬릿을 적용하고 동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옥살릭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베젤 등을 도입하며 전면적인 개편을 거쳤다. 더불어 블랙과 오렌지 컬러를 통해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다. 지름 42mm 케이스로 완성하고 블랙 알루미늄 다이얼과 로돌 도금 스텔레톤 핸즈, 화이트 슈퍼루미노바® 등으로 구성해 다이버 위치의 감성을 물씬 풍기며, 중앙 초침에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다. 클래스트를 더한 브러시드 메시 브레이슬릿 또는 폴드오버 클래스트가 달린 통합형 오렌지 러버 스트랩으로 출시하며, 오메가 쿼-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라버 8806으로 구동한다. 문의 02-6905-3301

Rebirth of 'Luggage'

샬런느의 라기지 백이 '뉴 라기지 백'으로 호기롭게 돌아왔다. 라기지 백은 2010년 파비 파일로에 의해 처음 등장했으며, 브랜드 창립자 샬런느 비피아나가 디자인한 미스트랄 백의 물결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유려하면서도 단단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하우스 역사상 핵심 디자인으로 손꼽히며 지금까지 명실공히 아이코닉한 백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과감한 오버사이즈 형태로 재탄생했으며, 종전보다 더 부드럽고 가벼운 가죽을 사용해 유연한 실루엣을 강조했다. 특히 가방 전면에 자리한 지퍼 포켓은 웃는 얼굴을 형상화해 윤택 있는 요소를 엿볼 수 있다. 총 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되며 9월 19일부터 프리 론칭을 통해 '뉴 라기지 백'의 일부를 먼저 만나볼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1577-8841



Modern Motion

토즈가 2025 F/W 시즌을 맞아 T-마라톤 스니커즈(T-Marathon Sneakers)를 공개했다. 고미니 로퍼의 세련된 감성과 스포티한 디자인을 결합해 풋살장에서 영감을 얻은 로 컷 실루엣과 새로운 밀창 디자인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 카프 스킨 레더와 스웨이드 버전으로 출시되며, 어퍼 텡(tongue)은 자석 디테일로 탈착 가능하다. 나파 레더 스트랩과 로고 디테일로 브랜드의 미학을 더하고, 스트로벨 공법을 적용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여성 모델도 함께 선보여 커를 슈즈로 즐길 수 있으며, 일부 매장과 온라인(tods.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Heritage Reimagined

랄프 로렌 컬렉션의 RL 888 라인은 뉴욕 매디슨 애비뉴 888번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영감을 받아 랄프 로렌이 추구하는 유산과 현대적 세련미를 담아낸 상징적인 라인이다. 2025 프리폴 시즌에는 카프 스웨이드 미니 토트백을 새롭게 선보인다. 넉넉한 내부 공간과 조절형 핸들, 새롭게 디자인된 'RL' 모노그램 하드웨어 참으로 세련된 디테일을 완성했다. 이탈리아 장인들이 풀 그레인 카프 스웨이드 보디와 스몰릿 스웨이드 안감으로 제작해 부드러운 텍스처와 실루엣을 자랑한다. 최고급 소재와 실용성을 갖춘 RL 888 미니 토트백은 우아한 데일리 백으로 추천한다. 2백70만원대. 문의 02-3467-6560



Chain Reaction

연결과 위임이 선사하는 스타일리시한 체인 주얼리 컬렉션. (위부터 차례대로) 다울 파인주얼리 갈통 다울 링 다이아몬드와 플라워 모티브 디자인이 특징.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그라프 스파이럴 컬렉션** 링 펄베 다이아몬드 로즈 골드 밴드, 곡선이 이어져 눈부신 반짝임을 선사한다. 9백72만원. 문의 02-2150-2320 **프레드 상스 인피니 링**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 33개를 더한 아이코닉 디자인. 6백73만원대. 문의 02-514-3721 **포테 에센셜 플렉스잇 링** 옐로 골드 소재로 체인처럼 연결되어 신축성이 있다. 4백만원대. 문의 02-6905-3345 **티파니 티파니 하드웨어 스몰 링** 18K 옐로 골드에 핸드 세팅된 다이아몬드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포토그래퍼 윤지영 에디터 신정임

Not Just a Bag

상상을 뛰어넘는 재치로 무장한 요즘 백.



NEW STORE



몬타나(Montana) in 서울!

너도 나도 '나만의 개성'이 스며든 공간을 외치지만, 사실 가구 한두 점만 놓고 보자면 맞출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가구와 소품의 선택과 배치, 그리고 삶의 흔적과 관심이 묻어낸 다양한 사물의 조화로 인해 비로소 '취향'의 지형이 빚어지는 법. 그레도 가구 자체의 개성을 살리고 싶은 이들에게 '모들 가구'는 꽤 괜찮은 스펙트럼의 미학을 인계할 수 있다. 실제로 프리미엄 모듈 가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몬타나(Montana)의 모노 스토어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리빙 편집숍 에잇컬러스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연 덴마크 프리미엄 모듈 가구 브랜드로 이미 탄탄한 인지도를 확보한 몬타나의 단독 매장이다. 몬타나만을 위한 모노 스토어는 아시아 지역 최초이기도 하다. 43가지 다채로운 색상과 여러 크기의 모듈을 조합해 한껏 개성을 녹일 수 있는 독창성으로 인정받은 몬타나는 최근 덴마크의 대표적인 체어 브랜드 엔겔브레츠(Engelbrechts)를 인수하며 의자 라인업을 강화하고, 1969년 에릭 라스문센(Erik Rasmussen)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시 선보인 '패러다임 소파'를 내놓는 등 여러모로 컬렉션과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약 231㎡(70평) 규모의 서울 매장은 몬타나의 '팬톤 와이어' 같은 입문용 품목부터 모듈 시스템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몸소 접하고 구상해볼 수 있도록 '체험 미학'에 초점을 맞췄다. 수납장, 책상, 다이닝 테이블, 의자 등의 제품군을 리빙 룸, 다이닝 룸, 키즈 룸, 서재 같은 '공간별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31길 30 문의 02-545-3130 **고성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마일 이모티콘이 연상되는 스마일리 백 2백93만원대 **모스키노**, 문의 02-4792-4144, 아이세도 팔레트가 연상되는 디자인이 특징인 이브닝 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랍스터를 모티브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집게와 꼬리 등 디테일이 돋보이는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아이코닉한 비세토스 모노그램 캔버스에 레드 컬러의 불꽃 디테일을 더해 로켓 모양으로 완성한 아렌 비세토스 로켓 크로스바디 87만원대 **MCM**, 문의 1600-1976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style chosun 2025 09

12

for her Selection

플로럴 패턴과 버킨디, 올리브 톤에 레더와 스웨이드가 어우러진 우아하고 센스 있는 가을 스타일링. PHOTOGRAPHED BY CHOI MINYOUNG, YOON JIYOUNG

부드러운 카프 스킨 소재에 셀린느 로고로 장식한 버킨디 컬러 헤드밴드 가격 미정 셀린느.

주선화모티프의 패션을 가미한 올 시즌의 스타일링 포인트인 **에르메스**.

브라스 소재로 제작한 D 세이프의 오버사이즈 버클이 돋보이는 링코(Lingot) 6백여만원 **헬보**.

이탈리아어로 은도자기로 장식된 손으로 호호를 스웨이드 클리어 코팅 처리한 **치안비토** 원시.

카프 스킨 소재의 베이지 컬러 페도라 햇가죽 미장 사발.

실크 패턴과 가죽 트림이 특징인 폴리에스테르 웨어 44만원 **에르메스**.

브라운 컬러의 그라데이션 렌즈와 골드빛 메달 소재로 클래식한 멋을 더한 선글라스 3백21만원대 **까르띠에 by 케어링 아이웨어**.

넓은 커리컬의 광택감 있는 폴리에스테르 소재 랩소스 가죽 미장 **MSGM**.

총 0.35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플라워 레이스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헬보 02-2150-2332 **셀린느** 1577-8841 **에트루스** 02-3446-1321 **치안비토** 02-3479-6129 **케어링 아이웨어** 02-517-6060 **키린** 02-6905-3453 **사벨** 080-805-9628 **에르메스** 02-542-6622 **MSGM** 02-3449-5941 **브레게** 02-6905-3571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투미** 02-539-8160 **그라프** 02-2256-6810 **페라가모** 02-3430-7854

하이트 다이아몬드와 로조 골드 기조를 이루는 모노그램 시그니처 패턴이 다이아몬드 밴드를 2천여만원대 **그라프**.

알코가 뽕족한 레이디 간치오 펌프스 1백35만원 **페라가모**.

이탈리아어로 은도자기로 장식된 손으로 호호를 스웨이드 클리어 코팅 처리한 **치안비토** 원시.

(위부터 차례대로) 부쉐론 플럼 드 평 L 이어링 공작새 깃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매종의 장인 정신과 유니크한 노하우로 완성한 섬세하고 가벼운 깃털 디테일이 돋보인다. 2개의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7백8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42-607-8193 불가리 세르펜틴 브레이슬릿 손목에 착 감기는 유연한 매력! 돋보이는 디자인의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3코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1억2천만원. 문의 02-6105-2120 샤넬 파인 주얼리 코코 크라쉬 브레이슬릿 아이코닉한 펄링 모티브로 완성한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러 개 레이어링하기에도 좋다.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특별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그라프 버터플라이 컬렉션 마퀴즈와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자연에서 자유로이 비행하는 나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버터플라이 컬렉션의 네크리스. 매종만의 특별한 커팅 기술로 완성한 총 8.1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웅장함을 자랑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2256-6810 키린 울루 이터너리 링 끝없는 순환을 상징하는 울루 모티브를 원형 프래임에 담은 유니크한 디자인의 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장식해 우아하게 빛나는 룩을 연출한다. 8백79만원. 문의 02-6905-3453 쇼파드 프레스처 레이스 링 고급스러운 레이스 장식을 모티브 삼아, 섬세한 세공을 통해 물결치는 듯한 레이스의 디테일과 가벼운 느낌을 잘 표현했다. 총 0.62캐럿의 8개 페어 컷 다이아몬드와 총 0.7캐럿의 1백20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했다. 3천5백92만원. 문의 02-6905-3390 포멜라토 사비아 이어링 화이트 골드에 1백86개의 다이아몬드를 불규칙하게 파베 세팅해 물속에서 반짝이는 모래알을 표현한 이어링. 볼륨감 있는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유니크한 감성을 자랑한다.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에디터 성경민

Truly Pure

그 어떤 유색 보석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다이아몬드의 품격.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4개의 카드 포켓으로 구성되어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벨덴 카드 케이스. 10×7.5×0.5cm, 16만원 투미.



다이아몬드 장식의 블랙 제이드가 돋보이는 그란데 유이 네크리스 1천3백65만원 키린.



브라운 컬러의 베이비 캐시미어 레옹 햇 1백만원대 로로피아나.



메리노 울 100% 아가일 자카드 베스트 2백만원대. 테일러링은 워크웨어 제이5백만원대. 모두 루이 비통.



화이트·핑크 골드와 브라운 PVD가 조화를 이루는 콰트로 클래식 다이아몬드를 랙글 5백만원대 부쉐론.



그레이 엘라게이터 가족 스트랩의 트래디셔널 매뉴얼 9인칭 38mm 4천7백만원 바세론 콘스탄틴.



코튼 소재의 개버딘 팬츠 가격 1백51만원 몽클레르 컬렉션.



다이아몬드를 포인트로 더해 단독으로 착용하기 좋은 그라프 이터나 링 4백21만원 그라프.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질머스 버니시드 카프 스킨 페니 로퍼 1백30만원대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시간이 지날수록 카프 스킨 소재의 멋스러움을 더해줄 벨트 가격 미정 토즈.



벨트가 달린 카프 스킨 바클 백. 48×34×18cm, 1천만원대 프라다.



고대 로마의 클로세움에서 영감받아 독특한 나선형 디자인의 비제로원 링 가격 4백69만원 불가리.



펜디 백을 들고 있는 귀여운 퍼켓 모티브의 참 1백만원대 펜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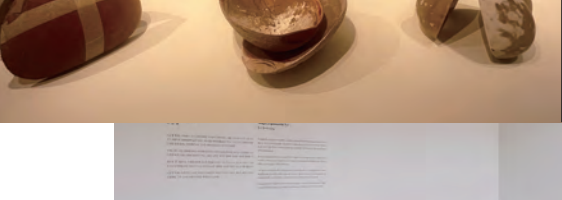
투미 02-539-8160 키린 02-6905-3453 로로피아나 02-6200-7799
부쉐론 042-607-8193 바세론 콘스탄틴 1877-4306 루이 비통 02-3432-1854
몽클레르 컬렉션 0030-8321-0794
케어링 아이웨어 02-517-6060
그라프 02-2256-6810 토즈 02-3438-6008 불가리 02-6105-2120
펜디 02-544-1925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3486-6235
프라다 02-3442-1831

Perfect Harmony

스틸과 골드가 만나 더 특별해진 콤비 워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튜더 1926 롤렉스 창립자 한스 빌스도르프를 통해 등록된 해를 기념하는 연도를 담은 워치답게 클래식하고 우아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지름 28mm 4N 로즈 골드 디테일을 더한 스틸 케이스에 섬세한 엠보싱 패턴 다이얼을 매치해 디테일함을 가미하고, 크기가 다른 7개의 링크로 이뤄진 브레이슬릿으로 세련됨과 견고함을 갖췄다. 5백83만원. 문의 02-2112-1251
소파드 알파인 이글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아이코닉한 워치로 스틸에 로즈 골드를 적절하게 믹스해 완성했다. 독수리에서 영감받은 베르나나 그레이 다이얼이 차분하고 중후한 매력을 자아내며, 약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2천1백68만7천5백20원. 문의 02-6905-3390
불가리 세르펜티 세두토리 아이코닉한 뱀 모티브의 케이스와 마치 비늘과도 같은 브레이슬릿의 유연함이 돋보이는 워치. 스틸에 18K 로즈 골드로 장식하고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지름 34mm에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2천4백10만원. 문의 02-6105-2120
까르띠에 팬더 드 까르띠에 스틸과 옐로 골드를 적절히 조합한 사각형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실버 마감 다이얼과 로만 숫자 인덱스로 모던한 느낌을 주는 브랜드 대표 워치 컬렉션.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1천5백만원대. 문의 1877-4326
에르메스 워치 에르메스 컷 브랜드만의 독특한 원형 케이스가 매력적인 워치로 지름 36mm로 제공한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스틸에 로즈 골드로 장식했으며, 은은한 반짝임이 돋보이는 오팔린 실버 다이얼을 매치하고 아리바인 인덱스로 마무리해 에르메스만의 유쾌한 감성을 전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오메가 드 빌 프레스티지 가장 클래식하고 세련된 워치 컬렉션 중 하나로 스테인리스 스틸 및 18K 세드나™ 골드 소재의 40mm 사이즈 모델. 크리스탈 마감 기법을 적용한 동형 실버 다이얼이 특징이며 로마숫자, 6시 방향 날짜창 등이 심플한 매력을 자랑한다. 1천3백만원대.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성경민



‘공예다운’ 것, 태도의 가치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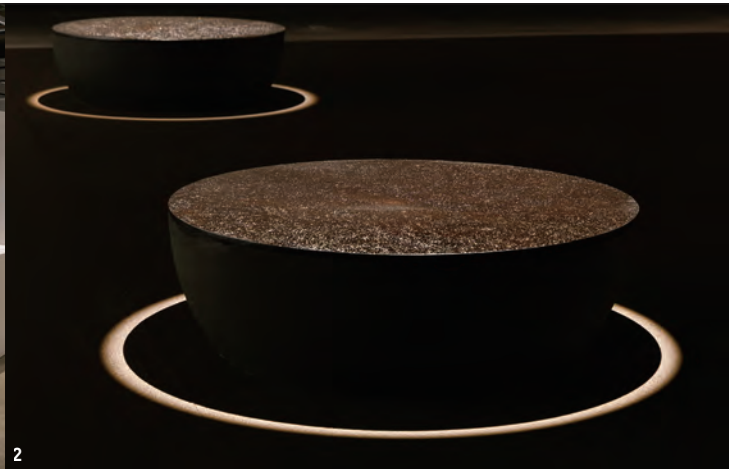
“공예가의 예술은 사람과 세계 사이의 끈이다.” _플로렌스 디벨 바틀렛(Florence Dibell Bartlett)

●키아프 서울(Kiaf SEOUL)과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개막을 앞뒤로 온갖 행사가 줄지어 열린 9월 첫째 주를 밀도 높은 파도처럼 휩쓸고 지나간 ‘아트 위크’. 이 화려하고 시끌벅적했던 주간을 수놓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유심히 들여다봤다면, 여러 키워드 중에서 ‘공예(craft)’라는 단어가 은근히 시야에 들어온 이들도 있지 않을까 싶다. 글로벌 디자인 플랫폼인 디자인 마이애미(Design Miami)의 지역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인 시추(In Situ)’ 프로젝트의 첫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면서 공예 작가를 다수 소개한 기획전 〈장작의 빛: 한국을 비추다(Illuminated: A Spotlight on Korean Design)〉(9. 2~14)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간수문전 시장에서 열렸고,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지닌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지난 4일 ‘세상 짓기’라는 주제(본 전시)로 60일만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했다. ‘키아프프리즈’ 주간에 개최된 브랜드 행사 목록을 봐도 ‘로에베 재단 공예상’으로 유명한 브랜드 로에베(매년 전시와 아트 토크를 진행한다)를 비롯해 저명한 공예가 카를로스 페냐피엘(Carlos Peñafiel)의 전시를 서울 한남 플래그십 매장에서 연 르메르 등이 눈에 띄었다. 재단법인 예술이 2022년부터 4년째 한국 공예의 가치를 알리고 증진하기 위해 사별과 함께 펼치는 ‘예술×샤넬’ 프로젝트의 올해 전시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함〉에서는 종이(지호장 박갑순)와 금속(이윤정)의 ‘따로 또 같이’식 앙상블이 선보였다.

●● 대형 미술관과 갤러리, 브랜드 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성대한 축제의 공간에 들어선 ‘공예의 자리’에 대한 반응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듯하다. 이 시작하기 그지없는 산업사회에, 예술의 상품화, 상품의 예술화가 갈수록 영리하게 일상을 파고드는 시대에 가치 있는 ‘만들기’의 정수를 곳곳하게 지켜나가는 공예의 소박하고 낭만적인 마력을 기리는가 하면, “그런데 이게 공예야, 현대미술이야, 아니면 디자인이야?”라는 질문을 내뱉으며 아리송하지만 감탄 어린 눈빛을 보이기도 한다. 후자의 반응을 논하자면, 소위 ‘현대 공예’라 불리는 다양한 작품의 모양새, 규모, 전시 방식 등을 놓고 볼 때 누구는 ‘현대미술’이고 누구는 ‘현대 공예’라고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얹은꼴이 많은 게 사실이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공예는 이론적 체계와 담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에 순수미술과 디자인 사이에 끼어 있는 미야처럼, 혹은 필요

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분류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이 분야의 걸출한 이론가 하워드 리사티 교수는 공예와 미술은 둘 다 손을 쓰는 ‘호모 파베르’가 의식적으로 창출한 사물이지만, 분명한 경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태생부터 자연에 종속되고 물리적 법칙을 따르는 공예가 인류적 보편성을 지닌 데 반해, “순수미술품은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술품의 기호 체계를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원래 지니고 있던 의사소통의 의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공예는 인식이나 언어를 떠나 손에 잡히는 ‘진정한 사물(real object)’로서 독립성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다.

●●● 그동안 스쳐간 공예가들과 ‘아트 주간’에 만난 이들을 보면서 느낀, 가장 와닿는 차이점은 사물과 재료, 장인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싶다. 일례로, 올해 예술×샤넬 전시에서 만난 이윤정 작가는 대개 주변부의 부속품으로 치부되는 못을 마치 액자 속 ‘주인공’처럼 내세운 작품을 선보였는데, ‘평등한 사물’이라는 평등한 상태에 대한 소신과 사물에 대한 애정은 제인 베넷 같은 학자의 생기적 유품론을 따를리케도 했다. ‘못과 액자 사이에서 뭐가 더 메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 질문해봤을 때는 그냥 똑같았거든요.’ 공예가들은 제작을 맡은 기술자와 장인들의 손과 ‘시간’에 대해서도 커다란 존경심을 내비친다. 청주공예비엔날레의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에 참여한 고소미 작가는 “장인이야말로 진짜 공예가”라면서 자신은 그저 현대 공예 작가로서 전통 기법을 이용해 현대화하는 과정에 쓰임이 된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물질 세계의 제약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지만, 그럼에도 장인의 정신과 기술을 이어가며 열정 어린 손길로 부단히 뭔가를 빚어내고자 하는 공예가의 태도, 이는 마하트마 간디의 자립과 저항 정신이 담긴 ‘카디 먼’으로 인디고 회화 작업을 한 카이무라이, 유목 문화를 반영한 펠트의 미학을 보여준 키르기즈공화국 작가들, 명상적이고 수행적인 설치 작업을 보여준 태국 공예가들에게서 섬세하고 명징하게 드러난다(청주공예비엔날레를 추천하는 이유다). 이렇듯 사공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공예의 가치를 묵도할 수 있는 현장을 대하니 ‘공예품을 만드는 일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리사티 교수의 말에 거만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글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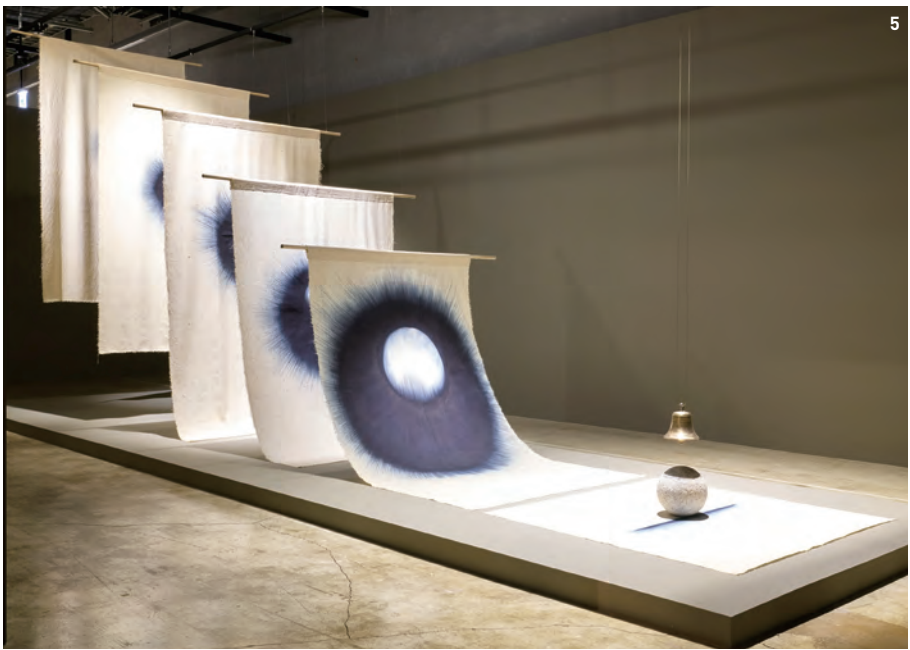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지구의 내일을 사랑하는 법, ‘세상 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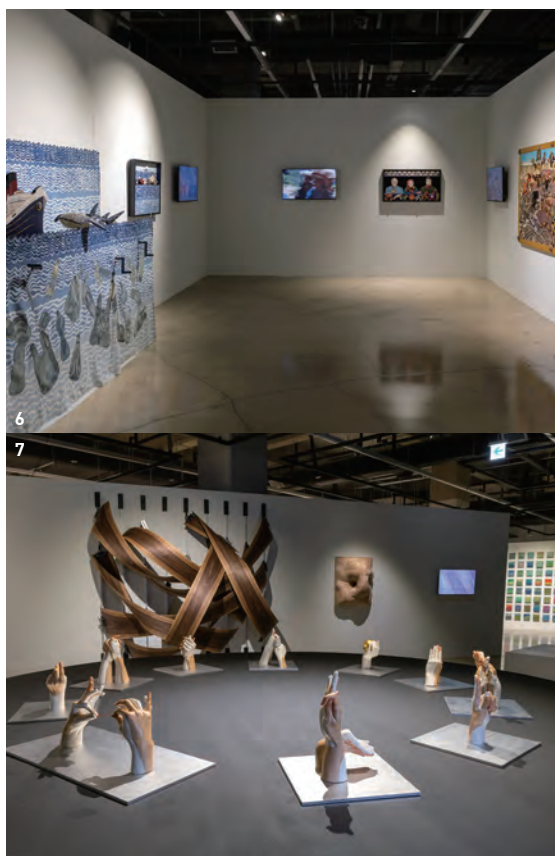
요즘 서울의 다양한 신을 만드는 원동력 중 하나는 ‘공예’다. 최근 로우프레스에서 펴낸 〈서울 서울 서울〉이 공예를 경험할 수 있는 50곳의 플레이스를 선정한 것처럼, 서울다움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다. “공예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서울의 기저를 단단하게 해주는 세계라고 생각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소중히 하고, 아끼고, 배려하며 사람들과 교류를 이어나가는 매개라고요.” 〈서울 서울 서울〉의 저자 박선영이 ‘공예’를 통해 지금의 서울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요즘 공예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한다. 공예로 ‘세상 짓기’를 보여준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청주 문화재단, 11월 2일까지)가 개막했다. 환경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새로운 세상을 짓는 지금의 공예를 확인할 수 있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도와주는 일손을 마다하고 동작은 다람쥐처럼 빠르며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손의 수고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장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사실 ‘공예적’이다. 때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몇 년씩 명하니 바다만 보내 지내기도 하며 이 고단한 일을 도대체 누가 계승하고 발전시킬지 생각하느라 장인들은 매일 밤잠을 설친다고 하지만,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 만난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공예의 미래’에 가슴이 뛰게 된다. “인간의 생존과 필요에서 비롯된 공예가 어떻게 탐미주의를 거쳐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재영 예술감독의 말처럼 법을 짓고 옷을 짓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공예가 지닌 본질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행사. 벌써 14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세상 짓기: Re-Crafting Tomorrow’라는 주제로 16개국의 1백48명의 작가가 참여해 보편 문명으로서의 공예부터 탐미주의를 위한 공예, 모든 존재자를 위한 공예,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예로 그 답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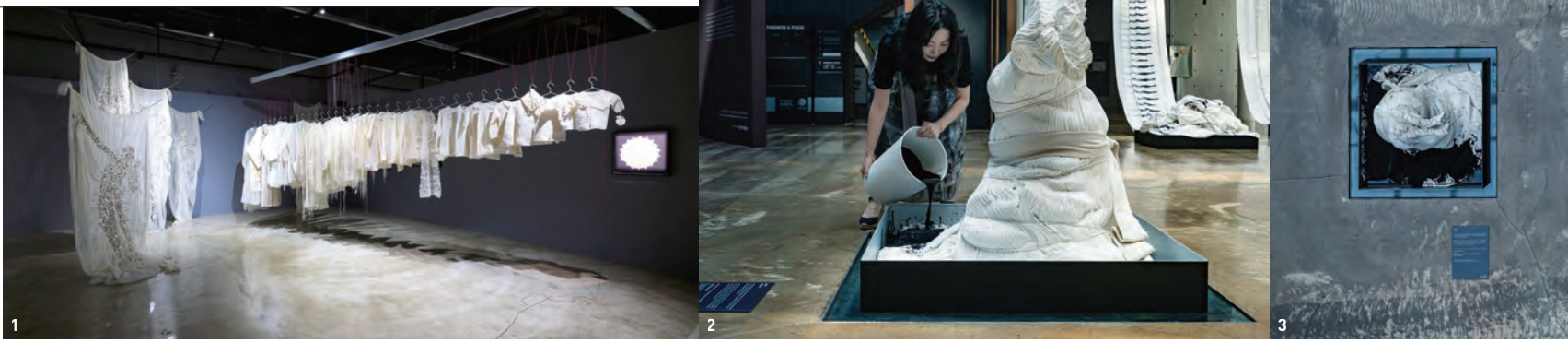
여성들의 삶과 노동, 전쟁과 폭력을 담아내다
공예가 세계를 대하는 태도와 윤리를 바꿀 수 있을까? 환경 파괴, 종의 멸종,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담아 ‘자수와 워빙’으로 엮어낸 공예 작품들이 전시된 충북 청주의 문화제조창. 이 시대의 폭력성을 수공예로 전환해 치유에 대한 서사를 구축하는 작업에는 섬세한 미가 담겨 있다. 다양한 문화권의 여성들과 협업해 자수 작업을 선보이는 수지 비커리의 작품, 종이와 섬유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고 중국 전통 의례에서 영감을 받아 철



1 ‘물성의 서사’를 주제로 한 올해 청주공예공모전 수상작.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 참여했고 대상에는 목공 분야 이시영 작가의 ‘Log 일제(日誌)’가 선정됐다. **2** 특별전인 〈명명백백〉에서 성파 스님이 선보인 ‘별들의 향연’은 칠흙 같은 옷칠의 깊이 속에서 자개 가루가 은은히 반짝여 우주를 떠올리게 한다. **3, 4** 태국 특별전으로 선보인 〈유연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전시장. **5** ‘한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역음과 짜임’에서 선보인 카이무라이의 ‘내 모든 기도에 대한 답은 내가 결코 묻지 않았던 질문 속에 있다’ 설치 작업. 인디고를 성스러운 물질로 여기고 짓은 천에 한 줄씩 선을 그는 행위로 물질성과 의식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가는 카르나틱 음악, 영적 상징, 물질의 기억을 융합한 수행적 행위를 통해 작업을 의식처럼 실천한다. **6** 정교한 비느질을 넘어 세계와의 연결을 직조하는 수지 비커리의 작업이 펼쳐진 전시장 모습. 물임형 스티치 작품인 ‘바다’에는 움직이는 상어, 서파, 액션과 함께 바다에 버린 쓰레기도 직조해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다. **7** ‘탐미주의자를 위한 공예’ 섹션에서 선보인 김화찬 구세나 작가의 작업. 김화찬 작가는 전통 보트 제작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나무 조각을 부드럽게 휘고 사포질과 구리선 봉합으로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체처럼 나무를 조각한다. 구세나 작가는 손이라는 신체 언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다그친다. ※ 1~4, 6, 7 이미지 제공_청주공예비엔날레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첫선을 보인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역음과 짜임〉특별전도 인상적이다. 섬유 노동의 명상적 수행성에 대한 사유와 통찰을 직조한 장연순, 한국과 인도를 오가며 얇은 베일 작업에 명상적 움직임을 담아낸 유정혜, 인도 쿠티 지역 여성들이 계승해온 전통 아플리케를 자수 기법으로 완성한 홍연인, 인간의 생애를 담은 의복을 완성한 고소미, 그리고 보이트(Boito), 카이무라이(Kaimurai), 페로(PéRo), 수막시 싱(Sumakshi Singh) 등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8명이 저마다 선보인 리서치 기반의 수행적인 작업은 놓치기 아쉽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공간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등 모든 관계의 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사이 공간이 공명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미 작가의 말처럼 관계의 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착하는 또 다른 특별전인 〈명명백백(明明白白)〉에서 선보인 성파 스님의 100m에 달하는, 하나로 이어진 한지 작품은 미래 공예의 수공예적 망망대해로 안내한다. 전통에 대한 고민이 깊은 수많은 장인들도 이제 공예의 미래를 조금은 덜 걱정해도 될 것 같다. 수많은 예술가와 문화인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기니까. 글 **김수진(프리랜스 에디터)**



interview with_고소미(Ko Somi)

잃어버린 흔적을 찾아서

섬유의 직조를 표현한 'Entangled and Woven(엮음과 짜임)'. 올해 청주공예비엔날레에 새로운 특별전으로 선보인 〈현대 트랜스코컬 시리즈〉의 주제처럼 한국과 인도 작가의 작품이 얹혀 공예의 미래를 탐색했다.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8팀이 올해 청주공예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인도 국립공예박물관, 7월 영국 휘트워스 미술관으로 순회 전시를 가진다. 그가운데 한국 작가로 선정된 고소미 작가를 잊혀가는 우리의 전통 소재가 가득한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전통 소재의 현대화 작업으로 서울의 다이내믹한 일상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공예는 한국 디자인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전통 장인들의 명맥을 이어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만들어낸 풍경일 것이다. 울포의 바닷가, 보성의 녹차밭, 홍화꽃이 깔린 어느 정원. 전통을 발전시켜가는 사람들을 둘러싼 풍경과 기억, 그리고 미래의 공예를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발견했다.

먹물이 한지에 스미는 것처럼 백색의 벽과 메탈 프레임으로 제작한 전통 등창 등 따뜻한 햇살이 머무는 한지 커튼 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시간을 되살리는 연구자의 작업실 같다. 가족의 오랜 흔적을 그대로 담아 현대적으로 되살린 고소미 작가의 스튜디오는 작가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공간 같았다. 전통 소재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수납장엔 작업에 사용하는 재봉실이 빈틈없이 가려있다. 무명천이 책처럼 쌓여 있고, 한지로 만든 그녀의 현대적인 설치 작업이 다정한 존재감을 발하는 공간은 잊힌 시간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우리의 ‘오래된 미래’가 여기 있구나 싶었어요.”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인 〈현대 트랜스코컬 시리즈〉를 위해 인도로 리서치 여행을 다녀온 고소미 작가는 현지 작가들의 수공 작업을 보면서 전통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들의 삶이 쌓여 주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인도 작가들의 작업 한 점 한점에 ‘오랜 삶’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인도의 민속 자수 기법인 ‘미러 워크(mirror work)’에서 신작의 실마리를 찾았다. 인도의 미러 워크 기법이 우리와 일체의 역사, 인도와 영국의 역사와 닮았다고 느꼈다. “거울을 밖이 아닌 원단에 설치해 각자의 고유성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여러 방향에서 봐야 하고 시간을 쌓아서 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생각으로요. 한 사람이 완성되어 갈 때 필요한 많은 외부 요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 신작 3점을 선보인 고소미 작가는 이 모든 게 결국은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했다. “한 사

1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현대 트랜스코컬 시리즈〉에서 선보인 고소미 작가의 ‘한 사람의 사람들-연속과’ ‘한 사람의 사람들-찰나’.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는 한지의 주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을 숨곡 같은 주름으로 표현한다. 이미지 제공_현대자동차 2, 3 문화제조창 로비에 설치한 고소미 작가의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성에 의해 다른 모양의 주름이 차곡차곡 쌓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다. 4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작가의 작업실은 부모님이 살던 곳을 개조해 만든 곳이다. 옛집의 흔적이 고소란히 남아 있는데, 외관에 나무 파사드를 더했다. 5 그녀의 작업실에는 수많은 한지와 소마사를 개발하기까지의 흔적, 실험 중인 작품이 커레이 쌓여 있다. 원래 동양화 전공이라 수묵화로 작품 드로잉을 했던 작가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수묵화로 드로잉하다 보니 망치는 그림이 많았다고. 그런 종이들을 모아서 질라 실을 만들었다. 6 작업실 창가에 자리 잡은 다도 공간. 이곳에서 손님도 맞이하고 창가 풍경도 명하니 바라본다. 2층은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개방감을 주고 작업 공간은 외부 노출을 줄여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벽에는 한지를 발라 마무리했다. 7 스스로의 기억이 흔적으로 담겨 있는 실을 꼬아 한지사로 만들어 그 흔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만든 작업. 그녀가 만든 한지사에는 간격과 차이가 수없이 중첩되면서 반복되어 있고, 많은 기억과 상념이 깃들어 있다. 질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주름이 숨곡처럼 얹혀 있다고. ※ 1, 2, 3, 5 이미지 제공_작가 스튜디오 ※ 4, 6, 7 Photo by 고성연



람, 한 사람’은 사람 그 자체의 고유성을 주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예요. 그 사람의 시간성에 의해 모두 다른 모양의 주름이 생기죠. 들어내서 보려면 펼쳐봐 하잖아요.” 한 사람의 사람들-연속은 35벌의 옷으로 한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미러 워크 작품인 ‘한 사람의 사람들-찰나’는 그 사람의 순간을 표현했다고. 모든 작품의 주제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설치미술과 공예미술의 경계를 오가며 한지로 무한한 작업을 펼치는 그녀의 시선은 다분히 철학적이다. 노자의 〈도덕경〉을 펼친 듯 그녀의 작업에는 ‘타인의 고통’을 쓰듬는 위로의 흔적이 먹처럼 배어 있다.

모든 것에 대한 존중과 화해, 한지로 건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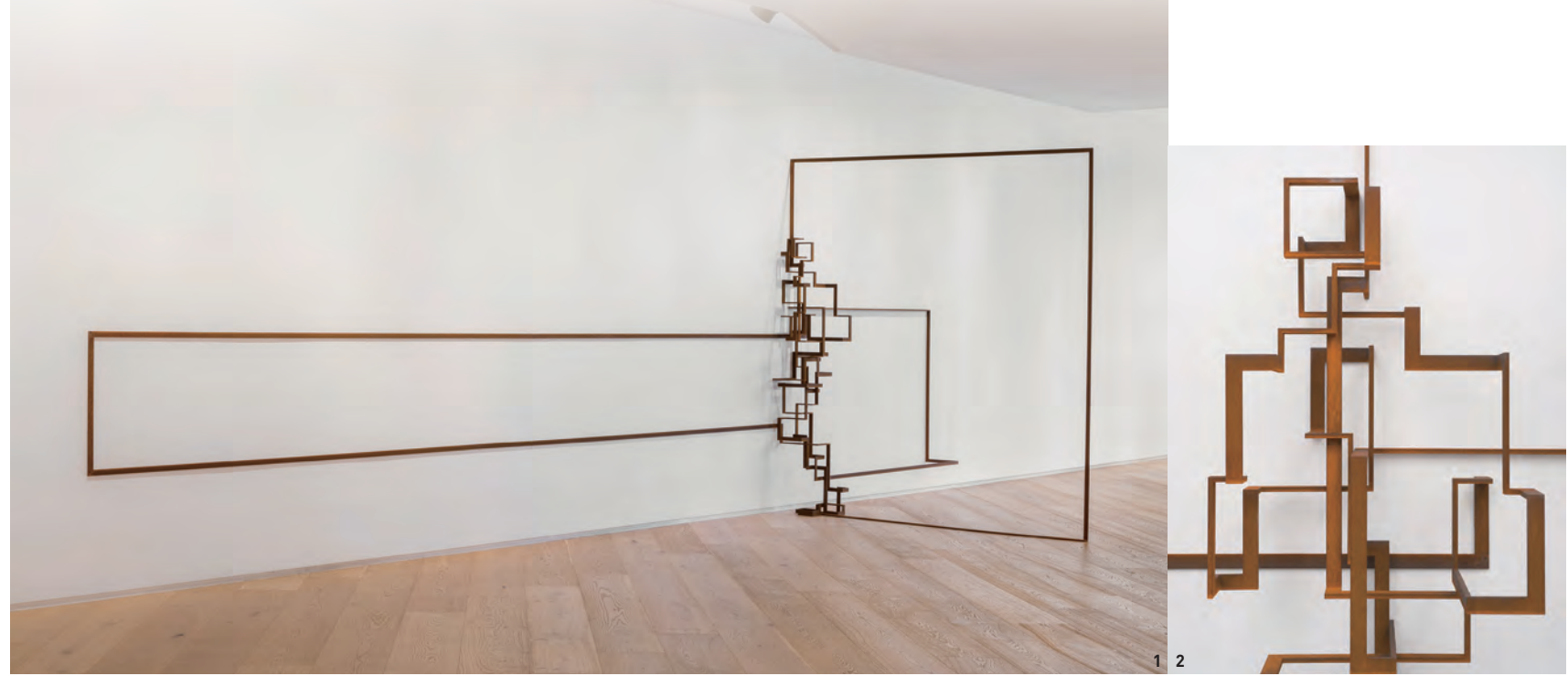
한지는 단편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은 시선을 갖추기 위해 선택한 재료다. 한국화를 시작으로 설치, 공예와 텍스타일 디자인까지 확장해온 고소미 작가는 한지에 빠져 ‘소미사(물레에 종이를 넣어 돌리면 종이가 꼬이면서 실이 되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한지 소재의 싹/씨까지 개발했다. 사람, 지역, 자연 등 모든 곳에서 ‘흔적’을 더듬어가는 것에서 모든 작업을 시작하는 그녀는 한지 연구를 위해 13년 동안 일본에 머무르며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진행했다.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세계 섬유 미술계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다나카 히데오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애제자가 되며 한지의 물성을 연구했다. “제 작품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흔적’이에요. 저는 비문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풍경이건 인물이건 제가 그려야 할 대상 앞에는 늘 동그라미나 선이 줄지어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릴 때는 이 선이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였는데, 막상 밖에 나가보면 비가 아니어서, 그것이 바람이라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점과 선이 마치 어떤 흔적처럼 무엇인가를 추측하게 만드는 단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가상의 동그라미와 선이 눈앞에 훑날리며 떠다니면, 저 자신의 상념과 관념이 바깥의 다른 것과 한데 섞여 공명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시다. 그 공명은 살아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지역 장인들과의 협업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로 전주랑 안동에서 한지를 주문하는데, 한지 농가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주문량을 늘리기도 하고 삼베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 운영비도 지급한다고. “장인과 저의 관계는 주름과 겹주름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고유성으로 주름을 만들고, 그 작업 위에 저는 겹주름만 잡아서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진짜 럭셔리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장인들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향할 미래라고. 그래서 스스로도 ‘옛 기법을 이용해 현대화하는 과정 중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타인의 고통에 개입할 능력을 잃어가는 시대에서 수공예적인 모든 것으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덧붙이고 싶다. 글 김수진(프리랜스 에디터)



안토니 고펠리와 ‘동물의 신화’

안토니 고펠리(Antony Gormley)의 조각 세계에서는 ‘신체의 공간화’가 세 단계로 전개된다. 몸을 석고로 캐스팅하며 ‘완전한 몸의 구현’을 시도하고, 몸을 블록 단위로 분해해 쌓아 올리면서 ‘물리적 픽셀’로 추상화하며, 나중에는 철제 띠로 몸 외곽만 남기고 내부를 비워 신체가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열리고 흩어지는 관계적 구조로 변모시킨다. 그는 신체를 단순히 인간적 자율성의 표지로만 보지 않고, 우주적 질서와 연결된 ‘동물적 매개체’로 이해한다. 그의 신체 조각은 대지와 맞닿고, 하늘과 대화하며, 비와 바람을 받아내는 자리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도시 문명에서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실험인 동시에, 몸을 통해 다시금 자연과 우주의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다.



“인간은 동물적 본성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서 그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조각가 안토니 고펠리(Antony Gormley)는 지난 8월 말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듯 ‘동물적 본성’을 강조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의 첫 서를 개인전 〈불가분적 관계(Inextricable)〉가 세계적인 두 갤러리인 타데우스 로팍(2025. 9. 2~11, 8)과 화이트 큐브(2025. 9. 2~10, 18) 서울 지점에서 공동 기획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편 강원도 원주의 뮤지엄 산에서는 〈Drawing on Space〉(2025. 6. 20~11. 30)가 열리고 있으며, 전남 신안군 비금도 해변에서 ‘예술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대형 작품 ‘엘리멘탈(Elemental)’은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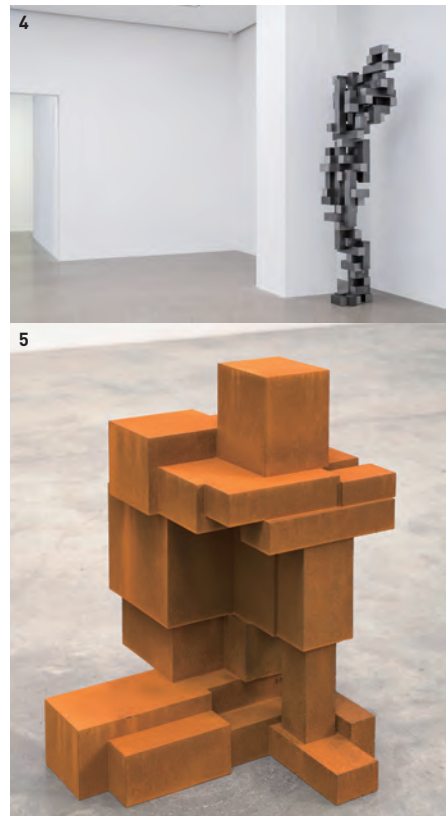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인 ‘인간과 공간의 관계’와 관련해 고펠리의 작업은 크게 세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동물적 본성’과 관련해서는 그의 최근 작업보다 이전 작품인 ‘Birth(iron, 0.8×2.3×0.7m, 통영 남방산 조각공원, 1997)’에서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 작품은 ‘보디 케이스(Body Case)’라고도 불리는데, 작가가 자신의 몸을 석고로 캐스팅해 만든 조각이다. 주물 석고에 갇히는 속 먹침, 세상의 단절, 산 채로 미라

가 되는 듯한 공포가 동물적 감각을 극대화한다. 그는 이 공포를 인도에서 배운 명상으로 극복했으며, 이는 외부와의 관계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두 번째, ‘Block Works’ 작업에서는 고펠리가 ‘물리적 픽셀’이라 부르는 ‘블록(block)’이 주 구성 요소다. 이는 단순한 조형 단위가 아니라, 문명의 기초 단위인 벽돌을 연상시키며, 몸과 건축, 도시를 잇는 개체로 작동한다. 블록으로 구축된 신체는 곡선적 유기체가 아니라 적층된 구조물로 드러나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시와 건축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 보여준다. 고펠리는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오늘날, 도시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자유와 제약을 동시에 시각화한다. 세 번째는 ‘Extended Strapworks’ 연작이다. 철제 띠로 구축된 신체는 내부가 비워지고 외부와 투과적으로 연결된다. 고정된 육체가 아니라 공간적 껍적처럼 제시되며, 몸은 건축적, 도시적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이는 신체가 실체라기보다 관계와 흐름으로 이뤄진 열린 구조임을 드러낸다. 고펠리의 작업은 점차 신체가 공간화, (공)호화되는 과정을 통해 변화된 인간 조건을 탐구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고펠리는 “우리는 외부의 날씨에 반응해야만 내면의 날씨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의 본질이 자연과의 교류 속에서 드러난다는 통찰이다. 따라서 그의 미학에서 동물성의 회복은 단순한 퇴행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균형을 되찾는 행위다. 이때 균형은 단순히 자연과 도시, 안과 밖, 인간과 환경의 조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술어지고 다시 맞춰야 하는 동적 균형을 의미한다. 서울 전시는 이처럼 ‘도시에 사는 동물로서의 인간성’을 드러내며, 도시를 단순한 배경이 아닌 살아 있는 구조로 인식하게 한다.

1 타데우스 로팍 서울에서 진행 중인(오는 11월 8일까지) 영국의 세계적인 조각가 안토니 고펠리(Antony Gormley)의 〈불가분적 관계(Inextricable)〉 전시 모습. 고펠리의 첫 서울 갤러리 전시는 타데우스 로팍과 화이트 큐브 서울점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Courtesy Thaddaeus Ropac gallery, London · Paris · Salzburg · Milan · Seoul Photo by Jeon Byung Cheol 2 Antony Gormley, HERE, 2024, 8mm Corten steel, 233.8×769.5×211cm. Photo by Stephen White & Co. © the artist 3 안토니 고펠리(b. 1950) 모습. Photog by John O'Rourke 4 화이트 큐브 서울에서 열리는 안토니 고펠리 〈불가분적 관계(Inextricable)〉 전시 풍경 (오는 10월 18일까지). Photo © White Cube (Jeon Byung Cheol) 5 Antony Gormley, COTCH XIII, 2024, Cast iron, 76.4×57.7×56.1cm. Photo by Stephen White & Co. © the artist

다. 따라서 조각은 인간을 다시 세계와 이어주고, 인간만이 지닌 동물적 리듬과 감각을 회복시켜 시 시대에 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로 기능한다. 그가 거듭 강조했던 ‘조각은 우리를 다시 직접적인 물리적 경험으로 되돌려주는 도구’다. AI가 이미지를 합성하고 정보를 재구성할 수는 있지만, 차가운 철을 만지는 감각, 바닷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체온, 비 속에서 있는 조각을 마주하는 순간은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 있는 몸으로 세계와 연결됨을 느끼며, AI의 추상적 정보 세계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담론은 ‘동물의 신화’로 귀결된다. 그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엔 동물성의 회복이 끝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뉴앙스가 담겨 있다. 신화란 단순한 화귀의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 불가능성과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다. 고펠리의 작품은 신화적 갈망과 균형의 실험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몸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마지막 가능성을 제안하는 듯하다. 글 심은록(미술비평가, 시 영화감독)





Advanced Innovation

스위스 르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의 고요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가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았다. 처음부터 하이엔드 위치메이킹으로 시작해, 한 세기를 넘어 전 세계 럭셔리 시계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혁신과 전통의 공존이라는 긴 서사시를 써온 오데마 피게의 시간을 신제품을 통해 재조명한다.



새로운 세대의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

1875년 젊은 시계 장인 줄 오데마와 에드워드 피게가 함께 위치 공방을 열었다. 오데마는 무브먼트를, 피게는 조립과 판매를 담당하며 완벽한 균형을 이뤘고, 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시계는 초박형 무브먼트부터 퍼페추얼 캘린더, 미닛 리피터같이 고난도의 컴플리케이션을 담아내며 당대 컬렉터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러한 하이엔드 위치메이킹에 대한 도전과 혁신을 1백50년간 지속해온 오데마 피게는 창립 150주년을 맞이해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가 고자 한다. 과거 하이엔드 위치메이킹의 시작이었던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를 또 한번 업그레이드한 것. 주인공은 초박형 사이드로 선보이는 차세대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인 칼리버 7138과 칼리버 7136이다. 덕분에 올해 초 150주년 기념 모델로 선보인 41mm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와 로열 오크를 더욱 작은 38mm 버전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브먼트의 핵심이었던 '올인원' 크라운 역시 그대로 적용해 시간, 날짜, 일, 월, 문페이즈까지 모든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먼저 칼리버 7138을 장착한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는 매뉴팩처 마감 기법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를 적용했다. 컬렉션의 시그니처인 압인 양각 처리한 그린 다이얼을 매치해 케이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로열 오크 컬렉션에서는 두 가지 다른 모델로 출시한다.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블루 PVD 그랑드 타피스리(Grande Tapisserie) 다이얼과 결합한 버전과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베이지 그랑드 타피스리 다이얼을 매치한 버전이다. 이 세 모델 모두 매뉴팩처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피스로 1백50개 한정판으로 출시되며, 역사적 문서에서 영감을 받은 빈티지 스타일의 'Audemars Piguet' 시그니처를 6시 방향의 달 위상 표시부에 삽입했다. 뒷면에는 '150' 로고와 함께 '150 of 150 pieces' 문구가 추가로 각인되어 있다.



우아함과 정밀함으로 빛어낸 대담한 디자인

오데마 피게에서 공개한 두 번째 150주년 기념 컬렉션은 '전통 위의 혁신'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한층 더 확장시킨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컬렉션이다. 세 가지 강렬한 원석 다이얼로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변모해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원석은 레드 루비 루트(ruby root), 블루 소달라이트(sodalite), 그린 말라카이트(malachite)를 사용했다.

사실 오데마 피게는 1960년대부터 천연석 다이얼이 지닌 심미적 잠재력을 탐구해왔다. 뛰어난 수작업 기술을 요하는 각 다이얼은 웨이퍼처럼 얇은 층의 원석으로 제작하며, 세심한 절단과 연마를 통해 본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광채를 드러낸다. 각 원석에 내재된 색상 변화, 줄무늬, 풍부한 질감은 어떤 다이얼도 똑같이 않은 유니크함을 선사한다. 이 특별한 삼부작을 위해 오데마 피게는 전 세계에서 엄선한 보석용 원석을 공수했다. 각각의 원석에 담긴 의미는 위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선명한 색감의 탄자니아산 루비 루트는 활력과 보호를 상징하며, 질은 블루 컬러의 브라질산 소달라이트는 평온과 명료성을 상징하고, 풍부한 그린 컬러의 잠비아산 말라카이트는 성장과 변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각각의 새로운 모델은 18K 화이트·핑크·옐로 골드 케이스로 제공된다. 6시 방향에 위치한 초박형 셀프 와인딩 플라이 투르비용의 기계적 정교함과 원석 다이얼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다른 위치에서 볼 수 없던 환상적인 감각

1 18K 핑크 골드와 베이지 다이얼이 결합된 38mm 로열 오크 모델. 올인원 크라운 조정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제공한다. 2 매뉴팩처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문서에서 영감을 받은 빈티지 스타일의 'Audemars Piguet' 시그니처가 삽입되어 있다. 3 한정판을 표시한 숫자 '150'이 각인된 모습. 4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에 라이트 블루 그랑드 타피스리 다이얼을 매치한 버전의 로열 오크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5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그린 양각 다이얼로 완성한 150주년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6 새로운 38mm 사이즈의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플라이 투르비용, 블루 소달라이트를 매치한 버전. 7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플라이 투르비용 레드 루비 루트 다이얼 버전. 8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플라이 투르비용 그린 말라카이트 다이얼 버전.



을 선사한다. 무브먼트는 올해 초 출시된 38mm 셀프 와인딩 플라이 투르비용을 기반으로 제작한 칼리버 2968이다. 매뉴팩처가 41mm 미만의 시계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셀프 와인딩 플라이 투르비용 무브먼트이며, 2022년 로열 오크 RD#3에 처음 도입한 초박형 칼리버로 두께가 3.4mm에 불과한 고성능 컴플리케이션이다. 케이스의 원래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폭을 줄이기 위해 재구성 및 재설계되었다. 기존 투르비용과 달리 플라이 투르비용 케이스는 하단부에서만

지지되어 다이얼의 천연석을 배경으로 우아하게 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오데마 피게는 여전히 오데마 피게 가문의 후손들이 운영하는 독립적 메종으로 자리하고 있다. 거대 그룹에 편입되지 않고도 무려 1백50년 동안 세계적 명성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브랜드의 진정성과 신뢰도를 반영한다. 이는 오데마 피게가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아이콘으로 자리하는 이유다. 문의 02-543-2999 에디터 성경민



King of Diamonds

반세기 이상 주얼리를 향한 찬사를 담은 그라프(GRAFF)는 가족 경영과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예술적 디자인을 펼친다. 매년 독창적인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며 보석과 주얼리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이번 시즌에는 트와이스 사나와 만나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하고 우아하게 풀어냈다. 창의성과 더불어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라프만의 열정적인 행로를 되돌아본다.

History of GRAFF

영원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는 수십억 년의 시간이 빚어낸 산물이며, 그라프는 다이아몬드를 향한 망설임 없는 열정과 찬사를 보내는 하이 주얼리 브랜드다. 진귀한 보석의 광채와 반세기 넘도록 이어온 그라프의 예술적 기술력이 교차되니 세대를 뛰어넘는 하이 주얼리의 탄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몇십 년에 걸쳐 주얼리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그라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족이다. 하이 주얼리 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창립자 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가족 경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라프의 창립자 로렌스 그라프(Laurence Graff)는 다이아몬드 전문 도매 기업

1 압구정 갤러리아 이스트에 실물을 확정 오른한 그라프는 완성된 예술품과 오브제, 맞춤 제작된 은은한 조명 등으로 주얼리 브랜드 특유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담았다.
2 전통 세공 기술을 마스터한 그라프 장인들은 최첨단 기계를 활용해 주얼리의 초기 설계부터 세팅 전 과정을 손으로 직접 완성한다.
3 주얼리업계에서 독자적 입지를 지난 그라프와 트와이스 사나가 만나 그라프 하이 주얼리만의 우아한 자태를 표현했다.
4 총 3.33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와 페어 컷 다이아몬드가 조화로운 드롭 스타일의 하이 주얼리 이어링.
5 유려한 구조의 라운드 컷과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끝에 오벌 컷 팬시 바비드 오렌지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을 창립한 후 1970년대 초 런던의 나이즈브리지에 첫 그라프 매장을 오픈한다. 오픈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매장 중 하나로 발전하며 수많은 주얼리 수집가의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그의 아들 프랑소와 그라프(Francois Graff)가 브랜드의 경영에 투입되면서 그라프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다. 프랑소와는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 로렌스에게 주얼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보석에 대한 흥미를 키워왔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이아몬드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쌓는다. 이후 경영 전문 과정을 수료한 직후인 1986년에는 그라프에 입사하고, 2004년에는 CEO가 된다. 그리고 창립자의 동생이자 주얼리 장인 레이몬드 그라프(Raymond Graff)는 런던 하이 주얼리 공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조카 엘리엇 그라프(Elliott Graff)는 제품 디자인과 판매는 물론 다이아몬드 매입과 생산 공정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그라프 가문의 핵심 인물 4명이 모여 개개인의 역할과 시각을 더하면서 브랜드의 입지를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가족적 기업 가치는 강한 책임감과 영감을 불어넣어 그라프만의 오랜 전통과 장인 정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 주얼리 하우스에서 취급하는 모든 스톤을 직접 선택하는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다이아몬드 소장부터 컬렉션 디자인까지, 주얼리의 모든 제작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원칙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구축했다.

또 그라프는 다이아몬드와 유색 보석을 통해 시대와 유행을 초월한 창의적 디자인을 선보인다. 그 중심에는 장인의 정교함과 세공 기법, 브랜드 고유의 독창성이 발현되는 워크숍이 있다. 런던 메이 페어(Mayfair)에 위치한 워크숍은 유럽에서 가장 큰 워크숍 중 하나로 원석의 선별과 연마, 가공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세밀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워크숍 내부에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금세공 도구를 비롯해 최첨단 컴퓨터와 3D 인쇄, 스캐너, 그리고 정통 기술력을 이어가는 그라프의 마스터 장인들이 존재하는데,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 지향적 환경을 조성한다. 주얼리 제작의 시작은 디자인의 형태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슈(gouache) 단계. 실제 스톤을 사용해 다이아몬드와 스톤의 정확한 위치를 종이에 스케치하고 상황에 따라 점토로 모형을 만들어 입체적인 청사진을 그린다. 이후에는 주얼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그라프의 과슈는 최첨단 컴퓨터를 통해 3차원적인 이미지로 전환되고, 기원전 2700년의 고대 방식인 로스트 왁스 주조법을 활용해 주얼리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손으로 작업한다. 수작업으로 섬세하게 조정된 각 요소를 조합해 피부에 닿는 밀착감, 스톤의 대비와 조화 등을 조절하고, 스톤의 광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팅 및 폴리싱을 수십 번 재연마한다.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유려한 실루엣, 투명도, 고유의 컬러가 빛을 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특별하고 경이로운 그라프 주얼리는 다이아몬드와 스톤 고유의 광채에 대한 이해도에서 출발해 장인의 손에서 최고의 예술적 기교로 완성된다. 버티플라이, 와일드 플라워, 탈다의 보우,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스파이럴 컬렉션 등 그라프를 대표하는 작품 모두 이렇게 탄생한다.

그라프와 트와이스 사나, 그 황홀한 만남

하이 주얼리 신에서 독보적인 그라프와 가요계 안팎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트와이스 사나. 이들의 뜻깊은 만남은 한 편의 로맨틱한 영화를 보는 듯하다. 낭만적인 도시, 파리 중심에 자리한 리즈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갈라 이벤트 참석을 준비하는 사나의 모습과 그녀가 착용한 그라프의 대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 포착되었다. 먼저 사나가 착용한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와 이어링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과 바게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구조적인 곡선 형태를 구성하고, 그 끝에 오벌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반복적으로 배열해 옐로 다이아몬드 특유의 생동감과 역동성을 강조했다. 특히 3.01캐럿의 쿠션 컷 옐로 다이아몬드가 포인트인 솔리테어 링은 화이트 다이아몬드 밴드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하이 주얼리 특유의 호화로움 오라를 발산한다. 캠페인 속 사나가 착용한 하이 주얼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운드와 페어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아라부터 7.77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프로미스 링까지, 유기적 구조를 이루며 화이트 다이아몬드의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을 그려냈다. CEO 프랑소와 그라프는 "트와이스 사나는 밝은 성격과 담대한 태도는 물론 자신의 커리어와 예술을 향한 열정을 지녔죠. 이러한 그녀의 에너지가 그라프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그라프의 철학과 창조적 비전, 하이 주얼리의 대담한 형태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영롱한 그라프 하이 주얼리와 트와이스 사나의 우아



6 라운드와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에 페어 컷 팬시 바비드 오렌지 옐로 다이아몬드를 포인트로 장식한 총 7.39캐럿의 하이 주얼리 이어링.
7 사나가 착용한 하이 주얼리는 총 7.58캐럿의 티아라부터 왕관을 형상화한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무려 7.77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수놓은 프로미스 링까지, 올 화이트 다이아몬드 컬렉션으로 고혹적인 하이 주얼리 룩을 완성했다.

한 매력을 세밀히 살펴볼길 바랍니다"라고 전하며 그라프와 함께 일상은 물론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 더없이 찬란하게 빛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라프의 찬연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속에서 빛나는 트와이스 사나의 다채로운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라프 공식 홈페이지(grafr.com)를 주목해보자. 문의 02-2150-2320
에디터 김하얀

A Legacy of Flowers

늘 자연의 생명력에 매혹되어온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2개의 컬렉션, 플라워레이스(Flowerlace)와 플레르 드 하와이(Fluers d'Hawaï)를 선보이며 그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꽃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오롯이 담아낸 새로운 컬렉션은 반클리프 아펠만의 유서 깊은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존재의 순간부터 매종에 창의성을 불어넣는 영감의 원천인 꽃들의 찬란한 유산. 마치 동화와 같은 스코틀랜드의 플라워 가든에서 열린 반클리프 아펠의 특별한 이벤트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이 주얼리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미학을 만날 수 있었다.

반클리프 아펠의 꽃을 향한 찬사

반클리프 아펠의 꿈결 같은 정원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 자연에서 꽃들이 피워내는 아름다움을 영원히 담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은 생동감 넘치며 아름다운 상징성을 갖춘 주얼리 작품을 창조해내고 있다. 미스터리 세트(Mystery Set), 미노다에르(Minaudière) 케이스, 변형 가능한 지프(Zip) 넥크리스, 그리고 알함브라(Alhambra) 모티브를 비롯한 매우 고유한 메종만의 스타일은 독보적인 독창성과 서정성으로 명성과 가치를 끊임없이 이어왔다. 반클리프 아펠에 창작, 공유, 그리고 계승이 지닌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연과 쿠티르, 무용,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서 영감받아, 시간을 초월한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눈부

“자연은 반클리프 아펠에 설립 순간부터 소중한 영감을 불어넣어온 원천이다. 반클리프 아펠은 오랜 역사를 이어오며 주얼리 작품은 물론, 예술 협업과 전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연의 세계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 세계는 반클리프 아펠이 단순한 주얼리 브랜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반클리프 아펠은 수년간 무용, 주얼리를 포함한 장식 예술, 디자인, 자연 보존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꾸준히 전개해왔다. 지난 7월 플로라 인터내셔널 이벤트가 개최된 킹스 파운데이션(The King's Foundation)의 정원은 그 긴밀하고 특별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의미 깊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이를 지역 사회에 환원한다는 파트너들과의 공통된 신념은 자연에 대한 반클리프 아펠의 존중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게 만든다.

플라워레이스와 플레르 드 하와이

늘 자연의 생명력에 매혹되어온 반클리프 아펠이 2개의 컬렉션, 플라워레이스(Flowerlace)와 플레르 드 하와이(Fluers d'Hawaï)를 선보이며 매종의 정원을 더욱 풍성히 피워낸다. 플레르 드 하와이 컬렉션은 생동감이 가득 차오르는 정원에서 싱그러운 영감을 받아, 생명력 가득한 컬러를 선보인다. 각 피어난 꽃 같은 주얼리와 위치는 파인 스톤으로 피워낸 꽃잎,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꽃술, 그리고 골드로 제작한 잎으로 구성되어 있다. 9월에 새롭게 선보인 플라워레이스 컬렉션은 오픈워크 기법으로 화관의 실루엣을 표현한 작품이다. 둥근 세이프를 꽃을 우아하게 표현한 실루엣은 부드러운 라인이 인상적이며, 반클리프 아펠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주제인 쿠티르를 활기 넘치게 표현해낸다. 반클리프 아펠의 장인들은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를 하나로 아우라지게 해서 이번 컬렉션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플라워레이스 컬렉션은 메종이 1930년대 후반에 탄생시킨 '실루엣 클립(Silhouette Clip)'에서 영감을 받았다. 컬렉션 구성은 아르 데코 후기에 등장한 스타일의 특징을 보여주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꽃 표현을 제시한다. 풍성함과 비움의 조화로운 밸런스 속에서 꽃들은 정교한 골드 라인으로 실루엣을 이루고, 다이아몬드가 더해져 찬란하게 빛난다. 자연과 쿠티르의 조화가 돋보이는 새로운 플라워레이스 컬렉션은 동일한 명칭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계승하며 한층 생동감 있는, 심플함 속에 정교함을 담은 새로운 주얼리의 탄생을 보여준다.

1 플레르 드 하와이(Fluers d'Hawaï) 이어링 스톤 모델. 로즈 골드, 로돌라이트,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반짝이는 꽃잎이 사랑스럽다. 2 옐로 골드, 시트린, 다이아몬드 소재의 플레르 드 하와이 링 라지 모델. 3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소재 플라워레이스(Flowerlace) 펜던트 스톤 모델. 4 플라워레이스 비트윈 더 핑거(Flowerlace Between the Finger) 링 스톤 모델.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로 구성. 5 플라워레이스 클립 펜던트 라지 모델을 착용한 모델. 꽃잎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으로 볼륨감을 선사하고, 꽃술은 크기가 다른 사이즈의 다이아몬드와 골드 비즈가 어우러져 움직이는 자연을 섬세한 비데칭성으로 표현했다. 6 반클리프 아펠의 장인들은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를 하나로 아우라지게 해서 컬렉션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고귀한 메탈 소재는 열을 가해 융해하며, 녹은 왁스에 남긴 자국을 따라 부어 형태를 만든다. 골드 요소들은 주얼리의 손길을 거쳐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후 젤스톤 세팅과 폴리싱 기법을 적용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7 스코틀랜드의 흰 옐라자베스 월드 가든 내에 위치한 로즈 가든에서 열린 플로라 인터내셔널 이벤트. 마치 동화와 같은 분위기에서 꽃들과 주얼리가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광경을 선사했다. 8 플레르 드 하와이 시크릿 워치. 화이트 골드, 아라미란, 화이트 머더오브펠, 다이아몬드,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했다.

플라워레이스와 플레르 드 하와이 컬렉션은 모두 자연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어떻게 플로럴 테마를 늘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연은 반클리프 아펠의 시작부터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매종의 첫 번째 플라워 클립은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매종의 창립 시기(1906년)와 비슷합니다. 꽃을 모티브 삼은 두 컬렉션은 1930년대 후반의 헤리티지 피스인 파스 파투(Passe-Partout)와 실루엣 클립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매우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르 드 하와이 컬렉션은 매우 자연주의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꽃처럼 스톤이 꽃잎이 되고, 골드는 스톤을 뒤에서 안전하게 감싸면서 고정시키는 것과 동시에 도드라지지 않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플라워레이스 컬렉션은 꽃의 추상적 디자인이 특징인데, 오토 쿠티르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죠. 리본처럼 꽃의 크기와 형태를 만들어내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컬렉션은 자연, 꽃을 근간으로 삼았지만 매우 다른 해석을 보여주며, 이는 자연 속에 있는 꽃에 대한 무한한 창의성을 보여주는 매종의 방식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컬렉션 모두 센터(중심부) 디자인은 동일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교한 다이아몬드 세팅입니다. 골드 비즈와 꽃술을 세련되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구현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파리지앵 쿠티르(Parisian Couture)와 연결 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클리프 아펠 주얼리에서 '쿠티르'란 어떤 의미이며, 그 유산은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난 1920년대의 아르데코(Art Déco)가 유행하던 시기에 매종의 컬렉션은 골드가 원단(fabric)처럼 사용되곤 했습니다. 마치 쿠티르의 원단처럼요. 예를 들어 실루엣 클립에서 골드는 꽃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리본처럼 사용되고, 리본 장식이나 꽃잎을 표현하기 위해 레이스처럼 작업된 골드도 있습니다. 이는 쿠티르와 주얼리의 연결 고리이며, 큰 영감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매종으로서 반클리프 아펠은 '혁신을 어떻게 구현하나요?' 그건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플레르 드 하와이 컬렉션의 혁신은 스톤을 보호하면서도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한 골드 세팅인데, 이는 오랜 시간의 연구에서 비롯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꽃잎이 마

치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주얼리들의 전문성에서 나온 것으로, 꽃잎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구조와 완성도를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메커니즘의 개발 또한 혁신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매종의 시그니처 요소를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잠금 장치(clasp) 개발, 편안한 착용감, 견고함 등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 반클리프 아펠의 기준이 되는 최상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두 컬렉션에서 기술적 측면이든 디자인적 측면이든,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플레르 드 하와이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은 스톤 셀렉션(stone selection)입니다. 컬러 조합, 형태, 특히 꽃 디자인에 가벼움을 더해주는 페어 셰이프(pear shape) 스톤 등의 요소를 조화롭게 선택하고 매칭함으로써 매종의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플라워레이스에는 전문성 있는 골드 세공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각 모델이 완벽한 위치에 세팅되어 있죠.

지금 이 시점에 '꽃을 행사의 메인 테마로 삼아 다시 집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꽃이라는 테마는 꽤 오랫동안 다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꽃에서 영감받은 여러 제품을 전시에서 만나보셨듯,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를 담고 있는 피스, 캔틸레리 피스, 다양한 컬러와 스톤을 아우르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꽃이라는 테마를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번 행사 장소로 스코틀랜드를 선택하신 것이 조금 의외인데요.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장소를 택하게 되셨나요? 저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원의 보호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킹스 파운데이션과의 협업은 반클리프 아펠 로즈 가든(Rose Garden)의 탄생으로 한층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컬렉션을 소개하고 꽃을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할 때, 그동안 정원과 함께해온 매종의 가치를 떠올렸고 주얼리, 즉 우리의 (가상) 정원을 실제 정원으로 구현해 이 2개의 정원을 함께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엔 전 세계 여러 정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그중 '로즈 가든'이 매종의 창작에서 중요한 요소였기에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현지 인터뷰

interview

“혁신과 도전으로 지켜온 아름다운 유산”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enier, 반클리프 아펠 CEO)

플로라 인터내셔널 이벤트가 열린,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택 중 하나인 담프리스 하우스에서 만난 반클리프 아펠의 글로벌 CEO 캐서린 레니에와의 친밀하고도 따뜻한 인터뷰.



Photo: Estelle Hanania

Get The List



CHANEL FINE JEWELRY

(위부터) 아이코닉한 쉐링 모티브로 가득한 코코 크러쉬 컬렉션으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스몰 링,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링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TOD'S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알파벳인 T를 모티브로 한 기하학적 컬러 대비 스타칭이 돋보이는 빅 사이즈 백, 정제된 느낌을 주면서도 구조적 디자인으로 견축미를 표현한 다이아 폴리오 백 가격 미정 **토즈**, 문의 02-3448-8233



OMEGA

여섯 번의 달 착륙 미션에 참여한 브랜드의 가장 아이코닉한 타임피스 가운데 하나로 지름 43mm 스틸 케이스에 블랙 PVD 코팅 처리한 운석 모양의 플레이트로 다이얼을 장식했다. 6시 방향 문페이즈에는 실제 달 운석으로 만든 2개의 달이 자리해 특별함을 더하는 미티어라이트 스피드마스터 문페이즈 2천5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6905-3301



RALPH LAUREN PURPLE LABEL

고급스러운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한 토트백, 은은한 라이트 브라운 컬러와 이탈리아 장인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핸드 스티치 디테일, 섬세한 마감 등이 돋보이는 베드포드 카프 스킨 토트 가격 미정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문의 02-3438-6235



HERMÈS WATCH

지름 42mm 스틸 케이스에 화이트 실버 다이얼과 블루 카운터를 매치하고 마넛 트랙, 레이즈드 마커, 초침 등에 적용한 오렌지 포인트, 독특한 서체의 아워 마커 등으로 유쾌한 감성을 더한 아쏘 크로노그래프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문의 02-542-6622

CELINE

(왼쪽부터) 반짝임이 매력적인 블랙 페이퍼트 카프 스킨 소재에 소녀스러운 감성을 물씬 풍기는 동그란 앞코가 매력적인 릴리 퍼포레이티드 트라이오프 슬링백 1백45만원, 블랙 그로그랭 소재에 트라이오프 로고 버클로 완성한 알마 트라이오프 물 1백45만원 모두 **셀린느**, 문의 1577-8841



MONTBLANC

브리프케이스 같은 형태지만 탈착 가능한 스트랩을 구성해 백팩으로도 활용 가능한 실용성 높은 디자인이 특징. 튼튼하고 세련된 카키 그레이인 레더 소재에 님 형태의 지퍼, 스티칭, 외부 포켓 등의 디테일까지 갖춘 24/7 백 3백64만원 **몽블랑**, 문의 1877-5408



FENDI

(왼쪽부터) 볼륨감을 자랑하는 볼 형태의 브라스 소재 이어링, 한쪽에 블랙 에나멜로 디테일을 더한 스페라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펜디**, 문의 02-544-1925 **에디터 성정민**

램 스킨 벨벳 코트 재킷, 브라운
 터틀넥 톱, 램 스킨 벨벳 코트 팬츠,
 블루 콘스탄스 백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블랙 부츠 가격 미정 토즈



move beyond
 스타일을 완성하는 순간, 이번 시즌 최고의 파트너, 뉴 잇(it) 백 셀렉션.
 PHOTOGRAPHED BY JUNG JIEUN



맥시 버트 베스트 4백80만원,
 레더 및 네오프렌 스커트 5백30
 만원, 퍼플 페이нт 레더 볼 1백53
 만원, 블랙 타이즈 가격 미정, 시에나
 스몰 숄더백 가격 미정 모두 구찌,
 카프 스킨 소재의 엔벨로프 크로스 보디
 백 3백32만원 몽클레르 + 질 샌더.



울 캐시미어 카디건 4백만원대, 니트
 톱 3백만원대, 투톤 세븐론 해그피시
 레더 스커트 1천1백만원대, 투톤 인메이
 해그피시 레더 부츠 3백만원대, 골드
 이어링 가격 미정, 핑크 스카이 백
 스몰 4백만원대, 시어링 맘마 비게트
 미디엄 5백만원대 모두 켄디.



컬로에 러플 블라우스, 블랙 스커트,
 스트랩 슈즈, 벨트, 패딩턴 미디엄 백
 모두 가격 미정 컬로에.

모헤어 올 드레스, 믹스드 파이버
& 패이턴트 카프 스킨 쇼트 부츠,
메탈 & 글라스 펄 브레이슬릿,
사이니 램 스킨 & 골드 톤 메탈
보우 백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쇼트 플레어 드레스
1천1백만원, 핑크 피니시 메탈
& 화이트 레진 진주 초커 7백
50만원, 디모션 스몰 백 5백
30만원, 미스 카로 디올링 미니
체인 백 3백65만원 모두 디올.





뽀스티에 톨 가릭 미정, 맥시
 란제리 드레스 가릭 미정, 실버 힐
 가릭 미정, 익스프레스 MM 6 백
 16만원 모두 루이 비통, 브리앙
 템포 시나몬 백 가릭 미정 멜보



에르메스 02-542-6622
 샤넬 080-805-9628
 토즈 02-3438-6008
 루이 비통 02-3432-1854
 디올 02-3280-0104
 펜디 02-544-1925
 몽클레르 0030-8321-0794
 끌로에 02-6905-3670
 미우미우 02-541-7443
 구찌 02-3452-1921
 질 샌더 02-6905-3530
 멜보 02-2150-2332

세틀랜드 울 재킷, 키키 세이블
 드레스, 올리브 실크 톨,
 레더 부츠, 핑크 보 맥 모두
 가릭 미정 미우미우.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Mykalia Walker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장소 협조 청담셀링의원

New Season,



정인 정신이 깃든 매듭 디테일과 견고한
송아지 가죽 소재, 그리고 넉넉한
수납력과 양 측면에 자리한 트위스트 락
장식 등이 조화롭다.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을 통해 크로스 보디로도
연출할 수 있는 미니 피카부 백
8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둥근 보디와 정교한 트위스트 핸들이
만나 독특한 실루엣을 자랑한다. 특히
라운드 플랩 클로저에 구성된 코인 포켓은
이 백에서 놓칠 수 없는 매력 포인트.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 소재 덕분에
가방을 한 손에 움켜쥐어 클러치로도
활용 가능하며, 내장된 숄더 스트랩을
통해 숄더 또는 크로스 보디로도
스타일링할 수 있는 스파이 스몰 백
각 4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New Essence

미적인 세밀함과 오차 없는 구조적 실루엣은 하나의 작품과도 같다. 계절의 변화 앞에서 마주한 F/W 백 & 슈즈.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위부터 차례대로)
노출된 솔기와 빈티지한 워싱이 엔틱한
감성을 자아내는 미드 힐 펌프스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메탈 디테일의 날렵한 앞코가 돋보이는
카프 스킨 레더 홀 2백1만원 **에트로**
문의 02-3446-1321. 극도로 길고
뾰족한 앞코와 슬릭한 라인, 큼직한 버클
디테일이 인상적인 헤론 버클 부츠
2백만원대 **맥퀸** 문의 02-6102-2226.
알파벳 체인 스트랩과 메탈 로고
클로저가 특징인 송아지가죽 소재
마이 카뮈신 백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오묘한 바이올렛 컬러의 마이스터스틱
미니 메신저 백 2백22만원 **몽블랑** 문의
1877-5408. V 메탈 로고와 크로커다일
레더 등이 페미닌한 분위기를 부여하는
베인 백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2015-4655. 둥근 실루엣의
버펄로 레더 홀스 메달 솔더백 2백30
만원 **폴로에** 문의 02-6905-3670.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로 장식된
모던한 디자인의 복스 카프 스킨 레더
RL 888 크로스 보디 백 4백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은은한 광택의 그린 해그피시 레더
소재를 가미해 고급스러운 미디엄 맘마
백 5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메탈 체인과 물결무늬 텍스처의 카프
스킨 레더, 가죽으로 엮은 핸들 등이
색다른 맛을 선사하는 벨라 백 5백50만원
에트로 문의 02-3446-1321. 발목을
슬림하게 감싸는 클래식한 첼시 부츠
가격 미정 **다울** 문의 02-3280-0104.



D자형 외부 포켓을 더한 유연한 실루엣의
송아지가죽 소재 뿔 뿔 백 4백61만원
델보 문의 02-2150-2332.



첸 당크르(chaine d'ancree) 링크를
적용한 체인 스트랩이 특징인 복스 카프
스킨 레더의 클리크티 백 2천48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아찔한 포인트드 토의 스트래피 펌프스
1백6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위부터 차례대로)
 작선과 곡선이 어우러져 유니크한
 셰이프의 카프 스킨 레드 웨이브 백
 3백16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블랙 토 포인트, 퀼팅 디테일 굽,
 그리고 매끈한 광택의 새틴 소재로
 이루어진 화이트 사이하이 부츠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트리쿤프 패턴의 캔버스 소재 티나
 솔다백 2백55만원 셀린느 문의 1577-
 8841.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멋의
 카프 레드 카놀로 버킷 백 2백50만원
 질 샌더 문의 02-6905-3530.



물뱀가죽으로 견고한 실루엣을 완성한
 보 백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
 541-7443. 디테일을 철저히 배제해
 직사각 셰이프와 톱 핸들을 강조한
 포부르 익스프레스 백 1천7백55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김하얀

Desire of Autumn

농밀하고 강렬하다. 짙게 배어든 빛 사이로 드러난 형형색색 가을 향.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켈랑 살리마 레쌍스 오 드 퍼퓸 인텐스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재해석했다. 신선한 베르가모트 향이 로즈와 포근한 바닐라, 그리고 마스크 향과 만나 우아한 마음을 뿜어낸다. 90ml 27만5천원. 문의 080-343-9500
프라다 패러다임 오 드 퍼퓸 전형적인 남성성을 깨고자 베르가모트와 정제된 플로럴 향의 제라늄을 선택한 뒤 앰버리 우드로 마무리했다. 여성도 접근 가능한 젠더리스한 향이 특징. 100ml 21만7천원. 문의 02-3277-0128 불가리 알레그라 인시에메 시더우드와 파오니, 민다린, 파출리 등 감각적인 향의 조합으로 우디한 플로럴 향이 탄생했다. 페미난한 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핑크빛 보틀도 눈여겨보길. 50ml 25만7천원. 문의 02-6105-2120 에르메스 바레니아 오 드 퍼퓸 인텐스 버터플라이 릴리와 참나무에 파출리 앰슬루트와 미라클 베리를 더해 여성의 강인함과 부드러운 면모를 모두 표현했다. 100ml 28만8천원. 문의 02-3479-1368 트루동 미스티코 레드빛 보틀에서 느낄 수 있듯 강렬하고 세련된 향을 강조했다. 가죽, 오드, 앰버가 샌들우드, 파피루스와 아우러지고, 오렌지 앰버와 에보니를 가미해 신선하고 관능적인 여운을 남긴다. 100ml 43만원. 문의 02-6905-3324 펜디 오 다르티파스 아름다운 로마 고유의 감성을 향으로 구현했다. 축제를 연상시키는 달콤한 향이 특징이며 따스한 머스크와 상쾌한 노각자나무의 아로마가 어우러져 다층적인 향을 자아낸다. 100ml 40만원대. 문의 02-544-1925 지방시 뷰티 드 지방시 랑팡 테리클 랑다넬과 베르가모트, 진저 에센스가 조화를 이루는 향이다. 특히 같은 컬렉션 중 하나인 아코드 파티클리에와 레이어링하면 우디 머스크 향과 시트러스 향이 결합되어 중성적이고 상쾌한 향을 느낄 수 있을 것. 100ml 42만원. 문의 080-801-9500 디올 뷰티 라 콜렉시옹 프리메 로즈 스타 오 드 퍼퓸 다마스크 로즈 향이 두각을 드러내며 상큼한 시트러스와 스파이시한 향이 하나와 머스크 향으로 이어져 예상치 못한 풍부한 잔향을 남긴다. 잭다르 로즈 향을 경험하고 싶다면 추천. 100ml 45만원대. 문의 080-342-9500 에디터 김하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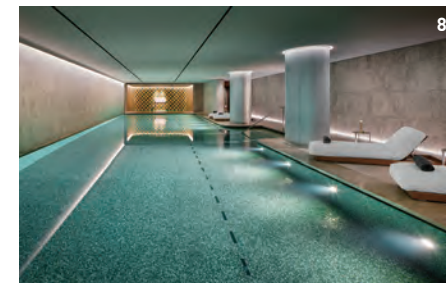
불가리 호텔 파리(Bvlgari Hotel Paris)

‘빛의 도시’에서 반짝이는 이탈리아 감성

파리가 여행자들의 선망을 받지 않았던 기억은 별로 없지만, 답답했던 팬데믹 시기에 ‘하늘길’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도 단연 상위권에 올라 있었다. 실제로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선정한 세계 1백대 도시 순위에서 파리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2024년 말 기준). 아마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오랜 기간에 걸쳐 더욱 빛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해온 덕도 있었을 터다. 한층 더 근사해진 도심의 호텔 풍경도 파리의 매력을 증폭시키는 데 한몫을 단단히 했는데, 그중에는 2021년 말 ‘파리의 동맥’으로 불리는 8구(센강 오른쪽)에 우아하게 등지를 튼 불가리 호텔 파리(Bvlgari Hotel Paris)도 있다. 북쪽으로는 개선문, 남쪽으로는 콩코르드 광장을 사이에 두고 기다랗게 펼쳐진 샹젤리제 거리를 품고 있는 화려한 8구에서도, 풍요롭고도 섬세한 이탈리아의 럭셔리 감성이 매혹적으로 흐르는 럭셔리 호텔이다.

도시 곳곳에 투영되는 빛의 미학으로 유명한 파리 시내의 중심가인 8구에는 ‘황금 삼각지대(Golden Triangle)’라 불리는 동네가 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이름일 샹젤리제(Champs-Élysées), 몽테뉴, 그리고 조르주 V 거리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 가운데 샹젤리제와 가깝지만 마치 다른 동네에 온 듯 번잡스럽지 않은 조르주 V 거리의 한 자락에는 단 아한 외관을 지닌 11층짜리 석조 건물 앞에 서 있는 도어맨들부터 다정다감하게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어쩐지 ‘이탈리언 감성’이 어린 듯한) 불가리 호텔 파리(Bvlgari Hotel Paris)가 자리하고 있다. 1884년 로마 중심부에서 탄생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불가리는 메리어트 호텔과 손잡고 밀라노, 런던, 발리, 도쿄 등에 걸쳐 꾸준히 공간을 확장해오며, 럭셔리 호텔 생태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도도한 이미지의 파리 중심가에 로마의 햇살처럼 따사로운 이탈리아 감성이 어떻게 균형 있게 녹아들었을까?

첫인상을 말하자면, 생각보다 편안하게 다가왔다. 온화한 베이지색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블랙 톤을 배경으로 감각적인 가구, 오브제와 더불어 1960년대 이 지역을 방문했던 소피아 로렌 같은 셀럽들의 사진으로 장식한 고혹적인 인테리어가 펼쳐지지만 ‘하이 주얼리 브랜드’라고 하면 곧잘 연상되는 특유의 화려함을 압도적으로 뽐내는 분위기보다는 은근하



1 프랑스 파리 8구에 자리해 샹젤리제와 개선문을 도보로 몇 분이면 갈 수 있는 불가리 호텔 파리(Bvlgari Hotel Paris) 건물 외관(11층).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76개의 객실을 갖추었다. 2 불가리 호텔 파리의 펜트하우스에서 즐길 수 있는 정원 풍경. 3 펜트하우스 내 다이닝 룸. 4 이탈리아 배우 모니카 비티(Monica Vitti)를 그린 화가 안페이밍의 초상화가 눈길을 사로잡는 호텔 로비. 5 불가리 호텔 파리의 ‘세르펜티 스위트(Serpenti Suite)’ 내부. 불가리 호텔 & 리조트 그룹은 올해 ‘별의 해’를 맞이해 변화와 부활을 상징하는 브랜드의 아이콘인 세르펜티를 콘셉트로 단장한 특별한 스위트룸을 전 지역에서 선보였다. 각 호텔에 단 하나의 세르펜티 스위트만 존재한다. 6 세르펜티 스위트의 욕실 모습. 7 풍요로운 식재료를 바탕으로 니코 로미토(Niko Romito) 셰프의 마법 같은 터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선데이 브런치는 불가리 호텔 파리의 시그니처 레스토랑 일 리스토란테(El Ristorante - Niko Romito)에서 만날 수 있다. 우아한 ‘지노라’ 식기에 나오는 메인 코스 말고도 치즈와 각종 햄, 디저트 등을 따로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부페 섹션이 마련돼 있다. 8 불가리 호텔 파리의 1,300㎡ 면적의 아름다운 스파 공간에 있는 수영장(25m 길이) 모습. 대추야자와 과일, 커피, 허브티 등의 간식을 무상으로 즐길 수 있다. 9개의 스파 트리트먼트에서는 뽕통, 111스킨 등의 브랜드 제품을 활용한 뷰티 케어를 받을 수 있다. ※ 1~8 이미지 제공 Bvlgari Hotel Paris Photo by 고성연(따리 현지 취재)



고 차별하게 매력을 발산하는 느낌이다. 자세히 뜯어 보면 소품이나 조명 하나도 20세기를 수놓은 조 폰티(Gio Ponti)와 카를로 스카파(Carlo Scarpa) 같은 거장들의 흔이 담긴 작품이지만 말이다. 호텔 공간을 마주했을 때 시선을 절로 고정시키는 ‘잇 아이템’은 아무래도 로비의 은은한 실크 벽지를 배경으로 걸린 카다란 회화 작품이다. 묘한 눈빛을 한 여인의 초상화인데, 2022년 2월 2일에 별세한 이탈리아 배우 모니카 비티(Monica Vitti)를 그린 화가 안페이밍(중국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다)의 작업이다.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보여준 강렬한 존재감이 아직도 생생해 “차오(ciao)”라고 인사를 건네야 할 것 같은 그림 속 그녀는 이탈리아의 경제적 황금기였던 1960년대를 반영하듯 큼직한 불가리 목걸이를 차고 있다. 그녀의 초상 아래 깔려 있는 대리석 바닥은 르네상스의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에서 영감을 받은 별 모양 패턴으로 수놓여 있다.

웬지 뇌쇄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로비나 라운지와 달리, 전반적인 객실 디자인은 ‘홀 스위트 홀’의 감성이 느껴진다. 전 세계 불가리 호텔의 디자인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안토니오 치테리오(Antonio Citterio)와 파트너사 비엘이 함께 이끄는 건축 스튜디오 ACPV가 맡았는데, 균형이 있는 가구부터 정갈한 소품들 담요, 부드럽고 가벼운 실내화에 이르기까지 산뜻한 우아함과 품격이 곳곳에 배어 있다. 특히 물 입자가 굽디고와 모

공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듯한 샤워기의 놀라운 성능이랄지, 타일질 소재의 욕조용 배개, 몸시도 기본 좋은 감각의 가벽과 포근한 실내화 등은 세심함의 미학을 일깨워준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웬만한 이슈가 아니면 대원할 필요 없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디지털 컨시어지’는 물론 밤이면 허브 티를 담은 보온병을 거실 탁자에 놓아두는 ‘우렁 각시’ 같은 웰니스 서비스도 작은 감동을 더해준다. 이 같은 ‘디테일의 차이’는 미식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미슐랭 3스타 셰프 니코 로미토(Niko Romito)가 이끄는 일 리스토란테(El Ristorante - Niko Romito)에서는 이탈리아의 풍미를 살리되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창조한 차원 높은 요리를 만날 수 있는데, 조식만 해도 1시간을 즐겨도 모자랄 듯 풍부하다. 일요일에 머무른다면 ‘환상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선데이 브런치를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매듭 모양으로 묶은 노디나 치즈, 롬바르디아 지역의 전통 당 절임 등 아름다운 이탈리아 맛의 세계를 마음껏 누릴 기회다.

수많은 럭셔리 호텔이 포진하고 있는 도시지만, 이처럼 ‘품격 있는 집’을 연상시키는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인테리어와 정갈 어린 서비스, 그리고 풍요로운 이탈리안 식도락의 정수를 품은 불가리 호텔 파리의 차별된 매력은 높은 인기의 이유를 증명한다. 명품 브랜드의 라이프스타일 사업 확장에서 단연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글 고성연(따리 현지 취재)

지방시 뷰티 르 루즈 벨벳 매트
립스틱 N04 누드 로즈 하이루몬산
복합체와 시아버터 성분을 담아
건조하지 않고 어떤 피부 톤에나 잘
어울리는 처분한 로즈 컬러. 요즘
자주 손이 간다. 2.3g 5만4천원대.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신정임

CUSHION CASE

겔랑 빠루
립스틱을
디테일이

겔랑 빠뤼르 골드 쿠션 케이스 #르 크로코 겔랑의 아이코닉한
립스틱을 재해석한 쿠션 케이스로 레드 컬러에 골드 스타터
디테일이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케이스 4만5천원대, 리필
14.5g 8만5천원대. 문의 080-343-9500 _by 인터넷 에디터 김보민

센녹 헤어 퍼fum 미스트 슬리핑
로즈 히알루론산, 콩 단백질
 등을 함유해 손상 모발 케어에
 탁월하다. 오일층과 수분층이
 섞이도록 흔들어줄 것. 60ml
 2만4천원. 문의 1566-2506
 _by 에디터 **김하얀**

라부르케 비치로즈 핸드크림
플로럴 노트와 시더우드 & 파출리,
그리고 유칼립투스를 더해 푸른 바다
향이 연상된다. 건조했던 손이 한결 촉촉해진
느낌. 30ml 2만7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신정임**

FLORAL MIST
로이비 베
미스트 데
조은 기

로이비 베르가못 앤 화이트로즈 퍼퓸드
미스트 데일리 리프레셔로 활용하기
좋은 가벼운 향수 미스트. 은은한 플로랄
향이 피부를 산뜻하게 감싸는 것 같은
기분을 준다. 120ml 2만5천원.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신정임

다들 프레스티지 르
마이크로 세럼 드 로즈 이요
액티베이트드 3백60도로
돌아가는 멀티 펄
애플리케이션을 장착한 아이
세럼 20ml 37만4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성정민**

SHISEIDO
VITAL PERFECTION

Intensive
WrinklesSpot Treatment. F
Concentrated Compound.
Fades or Taches. F
Pure Retinol Advanced.

FRESH EYES
시세이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시세이도 바이탈 퍼팩션
인텐시브 링클스팟
트리트먼트 A+ 눈가와
팔자주름, 가로세로
목주름 등 깊은 주름에
효과적이다. 심지어
기미 케어까지 가능하니
이름값 하는 느낌.
20ml 1만3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김하얀

NEW COLOR
샤넬 부
마젠티
스프링

샤벨 뷰티 레 까트르 웅브르 버튼 #바로크 쉬머리 브라이트
마젠타 퍼플, 새틴 라이트 골드, 새틴 코퍼 레드, 새틴
소프트 핑크까지, 네 가지 컬러로 구성해 포인트 아이
메이크업에 사용하기 제격. 2g 11만5천원대.
문의 080-805-9638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NEW PERFUME
딤티크 플
드 뚜왈렛
대표적인

닙티크 플레르 드 뽀 오
 드 두왈렛 닙티크의
 대표적인 화이트 머스크
 향에 파우더리한
 아이리시스와 목련 향으로
 고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100ml
 25만3천원대.
 문의 02-3446-7494
 _by 인터넷 에디터 김보민

나스 더 멀티플 돌체비타 베스트셀러
블러셔를 스틱 형태로 만들어 훨씬
간편해졌다. 훌륭한 컬러와 발색은 그대로
더욱 만족. 8g 5만4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이정민

※ 성정민(30대 민감성), 김하연(30대 건성), 신정임(20대 복합성), 김보민(20대 지·복합성)



1 펜디 펜디 플럭스 백팩 이탈리아 럭셔리 하우스 펜디가 플럭스 라인을 선보이며 펜디 플럭스 백팩을 출시했다. 백팩에는 FF 로고에서 착안한 펜디 플럭스 턱 클로저(FENDI Flux Tuck Closure)를 적용했으며, 내부에는 노트북 포켓을 더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가죽 소재의 블랙과 초콜릿 브라운 컬러와 블랙 나일론 버전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14-0652

2 발동 **세럼 메르베리유** 발동에서 철강상이 DNA와 미네랄 콤플렉스를 핵심 성분으로 한 메르베리유 (Merveilleux) 라인의 세 번째 제품, 세럼 메르베리유를 출시했다. 철강상어에서 정제한 고분자 & 저분자 DNA와 마그네슘, 망간, 셀레늄으로 구성된 미네랄 콤플렉스의 피부 탄력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통해 초체의 피부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070-4352-5203

3 리모와 토프 컬러 출시 리모와에서 디스팅스와 네버 스틸 컬렉션에 새로운 컬러 토프를 출시했다. 이번 컬러는 오랜 시간 물과 바람을 통해 은은하게 변하며 돌의 컬러를 모티브로 탄생했으며 레더와 파브릭 등으로 제작했다. 디스팅스 캐빈 토프, 네버 스틸 플랫 백팩, 리모 토프, 네버 스틸 플랫 파우치 토프를 전 세계 리모와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문의 02-546-3920

4. 프라다 토볼락 프라다에서 1990년대 말 아메리
컵프 스니커즈와 함께 처음 공개되었으며 프라다 리
네아 로사의 슈즈 중 최초로 런웨이에 오른 모델
토볼락을 재해석한 공개했다. 현대적인 매력을 더한
메트 피니시의 숭이치 가죽과 공학적 러버 솔로 포말
한 구조와 기술적 가능성을 결합한 디자인이 특
이다. 문의 02-3442-1831

5 쇼메 글로벌 앰배서더 차은우와 함께한 비 드
쇼메 캠페인 파리지앵 하이 주얼러 쇼메에서 글로

Showroom

별 앰버서더 차은우와 함께한 새로운 비드 쇼메 캠페인을 선보였다. 육각형 허니콤 모티브와 다이아몬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끝없이 이어지는 원형을 형상화한 비드 쇼메 펜던트를 착용한 차은우의 모습을 담아냈다. 문의 02-3442-3359

6 라프레리 퓨어 골드 리바이탈라이징 에센스 스
 위스 럭셔리 스킨케어 하우스 라프레리에서 퓨어 골
 드 리바이탈라이징 에센스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
 은 브랜드의 독자적 기술로 탄생한 '이스콜루비티'
 셀룰라 콤플렉스™, 골드와 펩티드A가 결합된 메노
 콤플렉스, 감초뿌리추출물로 구성된 어드밴스드 퓨
 어 골드 디퓨전 시스템을 적용해 여성의 라이프스
 타임 전환기에 겪는 기미와 탄력 저하 등 피부 고민
 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문의 02-6390-
 1170

7 사벨 워치 프리미에르 갈롱 사벨 워치에서 프리미에르 갈롱을 출시했다. 사벨 스타일의 상징적 요소 중 하나인 브레이드를 새롭게 해석해 18K 옐로 골드 소재의 트위스트 브레이드 브레이슬릿으로 선보였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지 않은 버전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080-805-9628

★ 랑방 사르라즈 프랑스 럭셔리 패션 하우스 랑방 사르라즈에서 일본 전통 직조 기법으로 완성된 사르라즈의 메노를 활용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섬유 자체의 메모와 함께 리 리 기는 덕분에 크레이프와 러플, 주름 등 볼륨감감각을 더한 디테일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형태 유지력이 뛰어나며, 시원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자랑한 한여름의 패션이다. 여성복의 우아함을 극대화한 랑방의 컬렉션이 프랑스의 고상한 미 감각을 대변하고 있다. 문의 02-3438-6186

9 그래프 엔들리스 서머 캠페인 그래프에서 여름을 찬미하는 엔들리스 서머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

번 캠페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사랑, 인연, 유대 같은 삶의 소중한 가치를 담은 비 투게더 컬렉션과 로렌스 그래프 시그니처 컬렉션, 스파이럴 컬렉션, 틸다의 보우 하이 주얼리 세트 등 다양한 컬렉션 제품을 공개한다. 문의 02-2256-6810

10 미우미우 포켓 백 미우미우에서 아이코닉한 포켓 백을 다채롭게 재해석해 선보였다. 전편 포켓 백 디자인이 특징이며 호보 백, 사철 백, 백팩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라인업을 확장했다. 에이지드 나파 가죽, 워시드 가죽, 소프트 카프 스킨 등 다양한 소재로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 문의 02-541-7443

11 에르메스 드로잉, 창작의 시작 에르메스에서 2025년 F/W 오보제 프레젠테이션 '드로잉, 창작의 시작(Drawn to Craft)'을 선보였다. 새들 스티칭을 모티브로 펜슬 라인 및 드로잉을 핑크, 블루, 오렌지, 블랙 등 다양한 컬러의 철제 선으로 꾸며 철제 프레임 속 작품처럼 만나볼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인 헤드폰을 포함한 스카프, 레더, 액세서리, 슈즈, 주얼리 등 다양한 오보제들을 공개했다. 문의 02-542-6622





RALPH LAUREN